

석사학위논문

김유정 소설의 양가성 연구

지도교수 안 성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홍 숙 희

2006년 8월

김유정 소설의 양가성 연구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홍숙희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u>심사위원장</u>	<u>인</u>
<u>심 사 위 원</u>	<u>인</u>
<u>심 사 위 원</u>	<u>인</u>

<국문초록>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홍 숙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연구는 김유정(金裕貞)의 단편소설 8편을 텍스트로 하여, 구조주의 관점에서 소설의 양가성을 탐구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서 양가성이란 프로이트나 바흐친의 주장처럼, 주체가 동일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태도나 모순적인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소설에서의 양가성은 서로 모순된 감정이나 가치, 태도 등이 동시에 보여주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소설에서의 양가성은 서로 모순된 감정이나 가치, 태도 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상태를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II장에서는 플롯 구조와 인물의 욕망 분석을 통하여 양가성의 정체를 분석적으로 탐구한다. 김유정의 소설은 표층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의 진도 구조에 의해 양가성을 창조하거나, 모순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원점 회귀적 서사구조를 통해 이중적 의미의 양가성을 형상화한다.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파행적 수단을 동원하다가 좌절의 국면을 맞이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김유정이 근본적으로 일제식민 체제가 몰고 온 절대 빈곤의 상황과 이에 맞서는 서민들의 본능적인 생존 욕망이 충돌하는 현실과 욕망의 이중성을 양가성으로 수렴하여 형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III장에서는 작가가 양가성의 표출 방법으로서 아이러니, 역설, 패러디의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여 양가적 의미를 어떻게 형상화 하는지를 고찰한다. 먼저, 아이러니의 기법 분석에서는 이야기의 표면에 나타난 의미와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중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이 연구된다. 역설의 기법분석에서는 현실을 직선적인 단순 비극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웃음이 묻어나는 파행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양가성을 창조하는 방법이 분석된다. 그리고 패러디의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윤리질서를 비꼬는 남녀간의 '성겨상의 진도'나 '공간상의 진도' 구조를 활용하여 양가성을 창조하는 길이 추적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쳐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은 4가지 유형으로 정립된다. 즉, 애정(결혼)의 양가성과 황금의 양가성, 매음(돈)의 양가성, 도시적 삶의 양가성이 그것이다. 소설에서의 양가성 탐구는 작중인물의 현실적 삶(욕망)과 모순된 환경 및 제도가 공존하는 갈등현상을 총체적으로 수렴하거나 종합하면서 당대의 시대상이나 세계관의 문제점으로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양가성 연구는 근대의 이항대립적인 사고와 가치를 해체시키고 다양한 갈등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보다 확대된 인식의 세계를 열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가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기존의 김유정 소설주제에 대한 단선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주제 해석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과 한계	8
II. 소설의 구조와 양가성	14
1. 플롯 구조와 양가성	14
2. 인물의 욕망과 양가성	27
III. 양가성의 표출 방법과 그 의미	37
1. 아이러니	37
2. 역설	58
3. 패러디	64
4. 양가성의 유형과 소설적 의미	73
VI. 결 론	83
참고문헌	87
<Abstract>	93



그 립 목 차

<그림 1> <나그네>의 옥망도.....	22
<그림 2> <덕돌>, <춘호>, <춘호처>의 옥망도.....	23
<그림 3> <꽁보>, <영식>의 옥망도.....	24
<그림 4> <수재>, <응칠>의 옥망도.....	25
<그림 5> <응오>, <나>, <장인>의 옥망도.....	26
<그림 6> <점순>, <점순>의 옥망도.....	27
<그림 7> <덕순>의 옥망도.....	28



I. 서 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김유정(金裕貞)의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주제론적 관점에서 소설의 양가성(兩價性, ambivalence)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1930년대는 한국의 현대문학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된 시기이다. 그 중반기는 일제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 수탈정책으로, 농민들의 궁핍상황이 절정에 달한 시기이며, 비극적인 식민지 현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김유정 소설은 당대의 현실을 다루되, 식민지 치하의 농민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와 질곡을 아이러니, 역설, 패러디 등의 기법을 통하여 양가성을 형상화 하였다.

30년대 후반기는 전반기의 문학적 수준이 확대 심화되는 동시에 종래까지 근대문학적인 성격 위에 놓여 있었던 한국문학이 처음으로 현대문학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¹⁾한 식민지 모순이 극대화된 시기으로써, 극도의 빈곤과 지식인 검거, 문학작품의 검열이 있던 때이다. 이러한 가운데 작가들은 글쓰기의 기법과 소재의 다양화²⁾를 이루어낸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하면서도, 동시에 작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성을 미학적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김유정의 소설 또한 일제의 검열을 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당대 사회와 민중의 모순된 현실을 우회해서 고발하는 기법을 차용하였다. 그의 소설의 대부분은 암울한 식민지 상황을 고발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웃음을 주는 희극적 요소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이런 양가적 양상은 일제의 압박과 제도적 착취 및 작가 자신의 처절한 궁핍 체험의 결과가 작품으로 형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소설 속에 내재한 양가성이란 서로 모순된 복합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모든 종류의 모순은 어느 한쪽을 지향하기에 갈등을 전제로 한다.

김유정은 그의 삶과 소설에서 철저하게 상식을 거부한다. 일반적인 사람들

1) 조연현(1977),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p.463.

2) 변신원(2001), 「김유정 소설의 해학적 웃음을 중심으로」, 「문학 속에 드러난 민족문화의 자취와 외국인에 대한 문학 교육」, 말, p.394.

의 관습적 삶과는 또 다른 형태의 세상과 삶이 있음으로써 그들에 대해 무한한 '낯설음'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존재 또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³⁾ 또한 김유정의 소설은 표면에 드러난 것과 그 이면에 내재된 의미가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는 아이러니 구조라는 점에서 당대 상징적 질서의 이면적(二面的) 구조와 닮아있다고⁴⁾ 할 수 있다.

이처럼 그의 소설은 단순히 당대 삶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궁핍이라는 표면적 사실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양가성 연구를 통하여 김유정의 문학을 재조명하려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이항대립적 해석에 머물러 있던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데 목적을 둔다.

2. 선행 연구 검토

김유정의 소설작품⁵⁾으로는 단편소설 31편, 수필 12편, 서간 5편, 일기 1

3) 유인순(2003), 「김유정을 찾아가는 길」, 솔과학, pp.84~85.

4) 김연진(2002), "일제 식민통치 논리와 의 상동관계를 중심으로", "김유정 소설의 욕망 구조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28.

5) 김유정(1908년. 1월.11일.~1937년. 3월.29일.)의 작품들: ① 31편의 단편소설: 「산스골나그네」(1933), 「총각과맹꽂이」(1933), 「소낙비」(1935), 「노다지」(1935), 「金따는콩밭」(1935), 「금」(1935), 「떡」(1935), 「만무방」(1935), 「산골」(1935), 「숫」(1935), 「봄·봄」(1935), 「안해」(1935), 「심청」(1936), 「봄과 따라지」(1936), 「가을」(1936), 「두꺼비」(1936), 「봄밤」(1936), 「이런音樂會」(1936), 「동백꽃」(1936), 「夜櫻」(1936), 「옥토끼」(1936), 「生の 伴侶」(1936), 「貞操」(1936), 「슬픈이야기」(1936), 「따라지」(1937), 「뽕별」(1937), 「연기」(1937), 「정분」(1937), 「두포전」(1937), 「兄」(1939), 「애기」(1939).

② 수필12편: 「넙히푸르러 가시든님이」(1935), 「朝鮮의 집시」(1935), 「나와 귀뚜라미」(1935), 「五月의 산골작이」(1936), 「어떠한 부인을 마지할까」(1936), 「電車が 喜劇을 낳어」(1936), 「길」(1936), 「幸福을 등진 情熱」(1936), 「밤이 조금만 짙었으면」(1936), 「江原道 女性」(1937), 「病床迎春記」(1937), 「네가 봄이런가」(1937).

③ 서간5편: 「姜驚郷前」(1937), 「朴泰遠前」(1937), 「文壇에 올리는 말씀」(1937), 「病床의 생 각」(1937), 「필승前」(1937년 탈고 1963발표).

④ 일기1편: 「日記」.

⑤ 설문·좌담2편: 「우리의 情調」(1936), 「其他」.

⑥ 번역 탐정소설1편: 「귀여운少女」(1937).

⑦ 번역동화1편: 「잃어진寶石」(1937).

여기에서 「숫」은 1934년에 탈고한 「정분」을 손질하고 제목을 바꾼 것이다. 「정분」은

편, 설문·좌담 2편, 번역탐정소설 1편, 번역동화 1편이 있다.

그가 작가로서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것은 1935년 소설 「소낙비」⁶⁾가 <<조선일보>> 신춘문에 현상모집에 1등으로 당선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그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 기간은 불과 2~3년 남짓하다.

김유정 문학에 대한 연구는 평론가 김문집⁷⁾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것을 종합해 보면, 크게 네 갈래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⁸⁾

첫째, 역사주의적 관점⁹⁾에 따른 논의이다. 이 논의는 ‘전기 연구’와 ‘전통성 연구’에 관련성을 토대로 하여 해학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전기 연구는 김영기, 윤병로, 이선영¹⁰⁾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김영수는 김유정의 조카로, 그의 생애를 가장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증언하였고, 윤병로는 「노다지」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것이라고 했으나, <<중앙일보>>는 <<조선중앙일보>>의 오기(誤記)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선영은 김유정의 생애에 대한 염인증의 시발점, 학적사항 등에 주목하였다.

전통성 연구는 서정록, 정한숙, 전신재, 신동욱, 이명렬¹¹⁾ 등에 의해 이루

그의 사후(死後) 『朝光』(1937.5.)에 발표되었다.(전신재(1987), 「원본 김유정 전집」, 한림대학교출판부. p.118.)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은 대동소이하지만 세부적인 묘사나 대화 장면, 플롯의 전개 등에 있어 「솟」은 「정분」에서의 서툰고 어색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많은 부분 새로 보충함으로써 보다 깔끔하고 분량에 있어서도 그것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있다.(김동석(2000), 「김유정 소설의 구조원리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53.)

6) 「소낙비」는 「흙을 등지고」가 「따라지의 목숨」에서 다시 「소낙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朝鮮日報」 1935년1월29일부터~2월4일까지.6회 연재됨.

7) 김문집(1937), 「고 김유정군의 예술과 그의 인간비밀」, 『조광』.

8) 연구사 연구는 유인순 교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전신재(1997), 「김유정문학 연구사-유인순-」, 「김유정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23~60.)

9) 이 관점은 ‘원전연구’, ‘언어연구’, ‘전기연구’, ‘명성과 영향 연구’, ‘전통성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전기연구’와 ‘전통성 연구’에 국한시켜서 살펴보겠다.

10) 김영기(1992), 「김유정-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윤병로(1983), 「김유정론-겸허의 인생론」, 「현대작가론」, 이우출판사.

이선영(1985), 「문학으로 불사는 단명한 생애」, 「한국대표명작 8-김유정」, 지학사.

11) 서정록(1969), 「한국적 전통에서 본 김유정의 문학」, 「동대논총」 제1집, 동덕여대.

정한숙(1976), 「해학의 변이」, 「현대한국작가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전신재(1984), 「김유정소설의 판소리 수용」, 「강원문화연구」 제4집 12.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신동욱(1971), 「송고미와 골계미의 양상」, 「창작과 비평」 통권22호.

이명렬(1987), 「김유정문학의 전통성 연구-판소리 문학의 특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 교

어져 왔다. 서정록은“한국적인 아이러니와 유머는 그대로 한국적 전통의 발 전적 계승”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적 요소들을 정밀 분석 하였고, 정한숙은 김 유정의 웃음은 “입을 굳게 다물고 괴롭게 삼켜야 하는 소극적인 웃음”이며,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 해학에서 크게 변이된, 나아가 해학의 카테고리에서 벗 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전신재는 김유정과 채만식의 진술을 비교하여, 이 들이 1930년대의 궁핍하고 모순된 사회를 보는 시각으로 판소리를 수용했음 을 주장한다. 신동욱은 「동백꽃」에 주목, 김유정 작품은 「홍부전」에 맥락이 닿아 있으며, “골계미가 창조적으로 계승”되었음을 추출해 낸다. 이명렬은 김유정의 인물형에서 1930년대의 전형적인 하층민상은 판소리 문학에서 전형 적인 하층민상의 수용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윤리 사회주의적 관점에 따른 논의이다. 이 연구는‘사회주의적 연 구’와‘윤리 사회주의적 또는 문학사회학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 저 사회주의적 연구는 서종택, 이주형¹²⁾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서종택은 그의 논문에서 김유정은 서해가 제기한 문제를 극복하고 종합하여 문학적 표 현의 성과를 더했음을, 이주형은 식민지 체제 하에서 하층민의 현실과 매음이 라는 공통기반 위에서 「소낙비」와 「감자」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두 작가의 현실인식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윤리 사회주의적 또는 문학사회학적 연구의 논의에서는‘긍정적/부 정적’평가의 두 견해가 있다.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논자들은 신동욱, 김영화, 임중빈¹³⁾ 등이 있다. 신동욱은 우리 농촌사회의 문제를 작품화한 사 람으로“개인의 문제를 사회구조 안에서 발견하여 공적인 쟁점을 노출시켜 그 것을 창의성 있게 보여준 작가”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영화는 김유정의 작품 이 30년대 만무방들과 따라지들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임 중빈은 사회현실의 밑바닥을 다루되 지루하지 않게 전근대를 증언한다는

육대학원.

12) 서종택(1976),“궁핍화시대의 현실과 작품변용-최서해, 김유정의 현실수용의 문제”, 「어문론집」 제 17집, 고려대.

이주형(1976),“ 「소낙비」와 「감자」의 거리-식민지 시대 작가의 현실인식의 두 유형”, 「국어교육 연구」 제8집, 경북대.

13) 신동욱(1969), “김유정고-목가(목가)와 현실의 차이”, 「현대문학」.

----- (1989), 「김유정 작품집」, 형설출판사.

김영화(1975), “소설사의 확대와 충격”, 「제주문학」, 제4호, 한국문협 제주도지부.

임중빈(1965), “단한 사회의 회화”, 「동아일보」,

----- (1972), “부정의 문학”, 한얼문고.

점¹⁴⁾에서 그의 소설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신동욱과 임중빈의 견해는 작품의 소재를 작품의 주제와 동일시하는 소재주의적인 연구태도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정적 평가의 논자들로는 김우중, 구인환, 임현영¹⁵⁾ 등이 있다. 김우중은 김유정이 “현실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이해 없이 작품을 형성해 나갔다” 주장하였고, 구인환은 김유정 문학이 “역사의식이 없는 피에로의 곡예”라고 질타하였다. 한편, 임현영은 “김유정은 농촌의 소작인 이익을 대변해 주지 못한 것처럼, 이들 가난한 노동자의 이익도 옹호해 주지 못했다”고 그의 문학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셋째, 형식주의적 관점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신비평적 연구’, ‘구조주의(기호론 포함) 및 러시아 형식주의적 연구’, ‘문체론 및 담론적 연구’, ‘해석학적 연구’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신비평적 연구는 김병익, 김용구, 신동욱, 구인환, 김영화¹⁶⁾ 등의 논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김병익은 작품 속에 나타난 궁핍화와 전도된 남녀관계가 바로 당시의 모순된 사회구조의 자연스런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구는 김유정소설의 구조에서 구성의 회귀성과 인물의 평면성을 지적하였으며, 열린 구조, 또는 동일 모티브의 반복이나 미해결의 구조라는 타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신동욱은 작품 자체의 분석을 통해 당시 사회적 부조리적인 구조가 작품구조 속에 반영됨을 주목한다. 구인환은 김유정 소설의 미학을 구성적 측면에서 평면적 구성으로 강조법을 즐겨 쓰고 순행적 플롯이라는 것, 배경과 시점이 암시하는 사건에 대한 예고, 개성적인 문체¹⁷⁾들을 일일이 제시한다. 동시에 당시의 사회상과도 연관시켜 김유정의 소설적 기교는 인정하나 역사성이 없음을 꼬집는다. 김영화는 작품의 내부구조의 분석에 역점을 두어 그 진수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는 특히 기

14) 전신재편(1997), 「김유정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41.

15) 김우중(1974),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구인환(1977), 「김유정소설의 미학-피에로의 곡예」, 「한국근대소설연구」, 삼영사.
임현영(1972), “김유정론”, 「창조」.

16) 김병익(1974), “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 「문학사상」.
김용구(1980), “김유정소설의 구조”, 「관악어문연구」, 제5집, 서울대.
신동욱(1982), 「김유정론」, 「우리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형설출판사.
구인환(1977), 「김유정소설의 미학-피에로의 곡예」, 「한국근대소설연구」, 삼영사.
김영화(1975), “김유정의 소설 연구”, 「어문론집」, 제16집, 고려대.

17) 개성적인 문체: 종말강조, 토착된 속어, 고백의 독백체, 언문일치문장, 문장의 길이는 중간형이며 용언형이다.

술과 효과 면에서 작품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가 톤, 플롯과 캐릭터, 시점의 효과, 언어의 확대, 어두운 해학 등을 살피고 김유정 소설의 인물들이 봉건사회의 하층민과 그 맥락이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구조주의 및 러시아 형식주의적 연구'에는 정현기, 박정규, 유인순, 유종영, 김미현¹⁸⁾ 등에 의해 논의되어 졌다. 정현기는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이등변 삼각형' 구조를 염두에 두고 「노다지」에서 <꿈보>의 배신이 있기까지 욕망의 중개자가 무엇이었는가를 주목하였고, 박정규는 '토도로프와 쥘레뜨'의 이론을 바탕으로 김유정 소설의 「봄·봄」을 분석하였으며, 유인순은 모든 작품은 작가의 상징행위라는 케네드 버크적인 발상에 힘입어 작품의 숨겨진 의미, 다층적 의미를 공간과의 관련양상 아래 추적한다. 유종영은 유정의 반어의 기법적인 면에서 형식주의적인 자세로써 「동백꽃」의 이중구조, 「봄·봄」의 표면적 대립구조, 「만무방」의 내면적 대립구조 등을 추출하였고, 김미현은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도입, 김유정소설에 나타난 '낮설기 하기' 수법을 연구했다. 그녀는 카니발적 구조의 분석을 통해 김유정 문학이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건강성을 지녔다는 것과 문학과 사회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목의 작가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문학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호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작품의 형식이나 기법에 집착하는 작품 내적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 측면에서의 '문체론적 담론적 연구'는 김상태, 한상무, 정영호¹⁹⁾ 등에 의해 연구되어 졌다. 김상태는 김유정의 문체적 특질로 아이러니와 파라독스를 들었고, 한상무는 아이러니의 개념, 기능,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김유정 작품에 나타난 아이러니(극적아이러니/어휘적 아이러니/상황의 아이러니로 분류함)들을 추출하여 이에 따라 김유정 작품들을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확실성을 거부하고, 인간 체험의 대조, 또는 모순의 양면을 동시에 지향하고자 하는 반어적 작가"라고 평가한다. 정영호는 "김유정 소설의

18) 정현기(1978), "인간이라는 욕망의 늪", 「문학사상」.
 박정규(1991), "김유정소설의 시간구조",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유인순(1980), "김유정소설의 구조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종영(1982), "김유정의 소설연구-반어의 양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미현(1990), "김유정소설의 카니발적 구조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 김상태(1974), 「김유정의 문학적 특성」, 「전북대논문집」 제16집. 인문과학편.
 한상무(1975), 「반어적 방법과 반어적 비전- 김유정연구」, 「강원대 연구논문집」 제9집.
 정영호(1991), "김유정소설의 아이러니 구조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아이러니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연구태도는 지나치게 작품의 형식이나 기법에 집착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기법들의 상호 연계작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작품이 갖고 있는 다중적 이미 파악에 한계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 원형적 연구’는 서정록, 유인순, 장경탁²⁰⁾ 등에 의해 연구되어 졌다. 이 논의에서 서정록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수용하여 김유정은 사랑 결핍에서 생긴 욕구불만의 환자이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리비도의 정착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유아적 정착성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인순은 김유정의 칼에 대한 무서운 기억은 모순된 관념에 대한 동시적 수용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파생되는 여성에 대한 애정의 갈구와 거부는 그의 소설의 작중인물인 여성들에게 능동적이되 신뢰받을 수 없는 여성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경탁은 우주적 순환질서에 따른 인물들의 갈등과 화해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N.프라이에 의한 우주적 순환질서와 이에 따른 주인공들의 행적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부분의 연구는 총체성을 제시하는 데는 미진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김유정 문학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유정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도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견해²¹⁾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문학에 대한 다의적 해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 두드러진 특성인 양가적 성

20) 서정록(1976),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심층의식-김유정의 Female Complex를 중심으로”, 『동대논총』 제6집, 동덕여대.

유인순(1994), “유정의 그물-김유정문학의 심리비평적 연구”, 『인문학연구』 제31집, 강원대 인문학연구소.

----- (1995), “운당구인환선생정년퇴임기념논문집”.

장경탁(1987), “한국근대소설의 순환구조고-이효석의 「산협」 과 김유정의 「봄·봄」 을 중심으로”, 『성대문학』 제25집.

21) 긍정적 평가: 신동욱(1975), 「김유정론」, 『현대작가론』, 형설출판사.

김영화(1975), “김유정의 소설 연구”, 『어문론집』 제16집, 고려대 국문과.

김병익(1982), 「김유정의 시대인식과 언어표현」, 『한국근대 문학사론』, 한길사.

김주연(1974), 「유우머와 초월」, 『문학비평론』, 열화당.

부정적 평가: 조연현(1966), 『한국신문학고』, 문화당.

김우중(1968), 「토속의 리리시즘」,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구인환(1977), 「김유정소설의 미학-피에로의 곡예」, 『한국근대소설연구』, 삼영사.

김영기(1969), 「한국적 리리시즘의 한계」, 『현대문학』 1월.

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의 소설 미학적 특성에 보다 깊이 있게 다가서고자 한다.

3. 연구 방법과 한계

먼저, 양가성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양가성은 원래 대립적인 인간 가치의 이중적 양상이나 대립적 체계의 공존적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양가성은 절대적인 근대의 '이항대립'²²⁾적 사고를 뛰어 넘는다고 할 수 있다.

루카치의 『소설 이론』에서 비롯된 이항대립의 문제는 소설의 세계를 두 개의 논리로 양분한다. 이러한 이항대립은 그 어느 한 쪽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나머지는 열등한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은 근대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이항대립에서 보여준 일면적 가치지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논의되는 양가성은 글자 그대로 이중 가치성, 즉 결합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대립적인 두 개의 의미론적, 이데올로기적 가치들의 종합적 해석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예컨대, 질과 양, 강한 것과 약한 것, 선과 악이 통일을 이룰 때 이를 양가성이라고 한다.²³⁾ 이러한 양가성은 정반대 되는 생각이 동시에 같은 가치로 나타나면서 입체적이고 다중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불안의 가장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요소로 본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이 같은 비중으로 떠오름으로써 야기되는 심리적 갈등상태를 바로 양가치 현상이라 부른다.

이러한 양가성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은 '프로이트'와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속에서 살펴보면 한층 자명해진다. 먼저,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²⁴⁾는 주체가 동일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태도나 모순적

22) 같은 의미로 사용된 이항대립, 이분법, 이원론, 이원성은 '이항대립'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23) 페터지마(1978), 「텍스트사회학이란 무엇인가」, 허창운·김태환 옮김(2001), 아르케, pp.33~34.

인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태를 말한다. 즉, 동일 대상에 대한 상반된 감정, 특히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는 정신분열증의 주된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E. 블로일러의 말을 차용해서 “반드시 병이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했다.

한편, 프로이드는 ‘쥐인간(Rattenmann)의 분석’²⁵⁾에서 쥐인간이라 부르는 소년의 정신적 삶에서는 욕구가 둘로 갈라져서 갈등을 일으킨다. 청년이 된 쥐인간은 군대시절에 ‘쥐항아리의 처벌’²⁶⁾이라는 잔인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쥐이야기에 항상 시달리게 된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이미 세상을 떠난 청년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증오의 갈등에서 찾는다. 예컨대, 청년은 의식적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이로제 환자에게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심층의식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²⁷⁾를 지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청년은 아버지나 애인에게 쥐항아

24) Freud는 양가성을 “The simultaneous existence of contradictory tendencies, attitudes or feelings in the relationship to a single subject—especially the coexistence of love and hate” 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가성을 주체가 동시에 어떤 것을 주체가 동시에 어떤 것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하는 의지의 양가성(ambivalence of the will), 반대가 되는 서로 다른 명제에 동시에 동의하는 지적 양가성(intellectual ambivalence), 동일인물에게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애정의 양가성(affective ambivalence)으로 분류한다.(J. Laplanche & J. B. Pontalis,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trans. Donald Nicholson-Smith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3, p.26.)(이주은(2000), 「셰익스피어 Henry IV와 정치적 양가성」,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인용)

25) 「쥐 인간-강박증에 대하여」(1909)에서 <쥐 인간>의 증례는 프로이드가 발표한 강박증에 관한 연구 중 가장 자세하고 또 유명한 것이다. 이 환자는 항상 망상적인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환자였다. 그는 특히 쥐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프로이드를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항상 쫓겨 다니고 더러운,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뜯는 쥐를, 자신과 동일시했고 군대에서 쥐를 이용한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강박증이 심해져버린 환자였다. 프로이드는 오랜 시간의 분석에 의해 그의 강박증의 근저에 있는 생략된 사고의 근원을 따라감으로써 무의식에 감춰져 있던 그의 사랑과 미움을 찾아내어 그의 강박증을 치료하였다.

26) 쥐항아리의 처벌: 죄수의 엉덩이에 빈틈없이 달라붙는 항아리를 꼭 조이게 밀착시켜서 꿈쩍달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에 대한 처벌이었다. 항아리 안에는 쥐 몇 마리가 들어 있어서 죄수의 항문을 갉아먹으며 점점 내장 속으로 기어들어 가는 것이었다.(강영계(2001), 「프로이드의 혁명적 생애와 사상」, 「정신분석이야기」, 건국대학교 출판부, p.314.)

27)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대략 만 세 살에서 만 여섯 살 사이의 아이들이 한쪽 부모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껴 그 부모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쪽 부모에게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프로이드는 청년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것을 자신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적용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창안해 내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오이디푸스 갈등 내지 오이디푸스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다.(상게서, p.315.)

리의 처벌이 가해지면 안 된다고 불안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처벌이 아버지나 애인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프로이드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청년의 노이로제 증세는 갈등 현실을 극복할 수 없으면서도, 그러한 현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한다. 프로이드는 자기분석과 환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런 욕구와 갈등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신경증의 중심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갈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가성의 근원에는 인간에게 최초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양육자인 동시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능성을 억제 또는 좌절시키는 사람이라는 심리적 기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다 정교화 하고 확장하려고 한 사람이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²⁸⁾이다. 그녀의 통찰들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한 변형이기도 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놀이를 통한 어린이 정신분석에의 길을 열었다. 그녀는 부모를 내사함으로써 형성되는 초자아가 오이디푸스 시기 이전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현실의 부모는 내사되어 아이의 마음속에 내적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녀는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는 두 개념으로 아동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부모를 내사하고 그 내사된 이미지를 통합하는 지를 양가적으로 보여주었다.

클라인에 따르면, 아이는 어머니의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로 내사한다. 이 단계를 편집적 자리라고 불렀는데, 이 단계에서 아이는 좋은 젖가슴을 이상화하고 나쁜 젖가슴에 의해서 박해 당한다는 환상에 시달린다. 이 분리된 이미지가 통합되는 것이 바로 우울적 자리이다. 우울적 자리에 이르러서야 아이는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한 어머니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28)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 오스트리아 태생이며 심리분석가이다. 그녀는 프로이드와 함께 아이들을 관찰 분석 했다. 아이들에 대한 관찰과 임상적 연구를 통하여 프로이드의 원래 이론을 정교화하고 더 확장하려고 하였다. 전체적인 클라인의 연구는 프로이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녀의 독특한 해석적 전망을 통해 이론 프로이드의 원래의 통찰들에 대한 변형이기도 하다. 그녀는 또한 정신 분석학자인 ‘산도르 페렌찌(Sandor Ferenczi)’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녀에게 있어서 ‘대상’은 프로이드의 대상과는 다르다. 프로이드는 대상을 본능적인 대상으로 본 반면에, 클라인은 좀 더 유아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유아의 마음속에 있는 대상은 심리적인 특징, 즉 성격을 나타내며 이것은 전체대상 뿐만 아니라, 의존의 대상이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심리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유아의 마음속에 있는 대상은 심리적인 특징, 즉 성격을 나타내며 이것은 전체대상 뿐만 아니라 부분대상에도 적용된다.

심리적 동인으로서의 양가성을 문학사회학적으로 좀 더 확장한 사람이 '페터 지마'이다. 지마에 따르면 양가성의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점점 심화되어 가는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양가성은 이중 가치성을 말한다. 대립들이 구분할 수 없도록 뒤섞이고 질적인 차이가 궁극적으로 모든 단위의 공통분모인 양에 환원될 수 있는 세계에서 모든 가치들의 전도가 일어난다.

다음으로, 양가성의 논리는 바흐친(Mikhail Mikhailovich Bakhtin; 1905~1975)의 '카니발(Carnival)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카니발은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세계이며, 민중이 중심을 이룬 집단적이며 민중적이다. 카니발 세계에는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성의 생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모든 카니발적 상징은 양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카니발은 사순절 직전의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는 축제로서, 사순절이 금기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모든 금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바흐친은 카니발 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한 기본 전제로서 문화를 고급 문화와 저급문화의 두 층위로 구분한다. 그가 이렇게 문화를 크게 두 층위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느 한 문화가 지배 계층에 의해 <공식적으로>(공식적인 문화란; 지배계급인 상류 사회의 귀족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가리킴)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비공식적 문화란; 피지배 계급인 일반 서민과 민중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그런데 피지배 계층의 저급문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가 카니발이었다.

이와 같이 바흐친은 양가성을 카니발 제도와 관련짓는다. 그는 「라블레와 그의 세계」에서 라블레의 작품을 분석하여 중세사회에서 항상 무시되어 왔던 민중의 카니발이 어떻게 르네상스의 반중세 반봉건적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²⁹⁾

카니발이 문학 장르에 끼친 영향은 카니발 이론에서 현실 뒤집기의 문학적 특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카니발 문학은 사회적 현상인 카니발이 문학의 영역으로 들어와 기존의 질서체계에서 높이 평가되었던 도덕이나 인습 등을 물질적인 육체의 차원으로 격하시킨다. 이러한 격하 및 하락은 파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³⁰⁾ 즉 파괴 속에서의 재생,

29) 김정자 외(1999), 「현대문학과 양가성」, 태학사, p.101.

30) 김옥동(1988),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pp.234~260.

매장 속에서의 생성과 연결되면서 양가성의 원리를 함축하게 되는 것³¹⁾이다.

이러한 카니발적 양가성은 현실 질서의 통상적인 분류체계와 위계질서를 뒤집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카니발 문학은 실제적 층위가 아닌 기능적 층위에서 상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뒤집혀진 가치관이나 삶을 나타내는 동시에 양가적이고 동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³²⁾ 고 할 수 있다.

또한 카니발화한 문학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문체와 함께 상이한 인물들의 시각을 등장시킨다. 이를테면, 높은 것, 영적인 것, 이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끌어내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성적인 것, 배설적인 것을 즐겁고 유쾌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절대를 파괴시키는 상대의 창조인 패러디는 카니발적 제식의 핵심적 요소로서 낯설음의 미학을 낳게 한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이러한 카니발의 논리는 창조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카니발 웃음과 관련된다. 바흐친에 의하면 카니발의 웃음의 특징은 축제와 관련이 있으며, 그 웃음은 양가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카니발의 웃음의 지대는 접촉의 지대로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일치하며 양립 불가능한 것이 서로 연결된다.³³⁾ 이항대립의 구조 속에서 상향적인 것은 하락시키고 하향성의 부정적 가치 속에서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는 태도 자체가 바로 양가적이다.³⁴⁾ 또한 이 웃음은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며,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으로, 안정된 것을 불안정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다양성과 변화의 감각을 살아있게 한다.

이와 같이 카니발의 세계는 괴롭고 부정적인 세계를 주관적인 시선에 의하여 즐겁고 긍정적인 세계로 파악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현실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고 볼 수 있다.³⁵⁾

‘바흐친’은 정신을 ‘공식적 의식’과 ‘비공식적 의식’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프로이트가 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그는 ‘공식적 의식(외적인 말)’으로, 그 무의식을 비공식적 의식(내적인 말)이라고 불렀다. 이 두 가지 말은 모든 언어적 행위의 일반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내적 언어는 외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표현이다. 결국 바흐친은 무의식까지도

31) 김정자 외(1999), 전계서, p.102.

32) 상계서, pp.101~102.

33) 미하일 바흐친(1988),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역, 창작과비평사, p.440.

34) 권택영(1990), 「미하일 바흐친과 후기 구조주의」,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p.256.

35) 김정자 외(1999), 전계서, p.110.

언어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언어를 보다 역동적이고 폭넓게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양가성의 문학이론은 ‘이것이냐/저것이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둘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바흐친이 말하는 카니발적 다성성³⁶⁾의 획득인 셈이다.

이와 같이 바흐친은 소설의 언어와 문체 등의 형식적 요소들은 물론 언어 의식과 세계관 등과 같은 작품 외적 요소들의 얽힘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파악하여 다른 각도에서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통합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문학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언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사회학적 시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는 문학과 삶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을 분석해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구조주의의 방법을 원용하여 8편의 단편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선택된 텍스트는 「산사골나그네」, 「소낙비」, 「노다지」, 「금 따는 콩밭」, 「만무방」, 「봄·봄」, 「동백꽃」, 「뽕별」 등이다. II장에서는 플롯의 구조화와 인물의 욕망의 형상화 등을 통한 양가성의 창조방식을 탐구하고, III장에서는 양가성의 문학적 표출 방법인 아이러니, 역설, 패러디의 기법과 의미작용을 살핀 뒤, 양가성의 유형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필자는 김유정 소설의 입체적인 심리분석을 통하여 지향하게 될 것이다. 작중인물의 양가성 분석은 인간 이해의 입체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다성적 해석의 문을 여는데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구조주의의 방법에 의존하여 김유정의 몇몇 작품만을 다룸으로써 총체적인 작품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둔다.

36) ‘다성성’이란 그 자체가 서사문학의 본질이고 다양하게 구현되는 역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바흐친이 이를 ‘도스토예프스키’문학에 협의적으로 적용하여 고정 개념화한 것은 용어상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으로부터 다성성의 개념을 도출하고도, 다성성이 그의 작품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다성성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왔고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모호함을 보이고 있다.(Gary Saul Morson & Caryl Enerson, MIKHAIL BAKHTIN (Stanford Univ. Press, 1990),(김병로(1999), 「한국 현대소설의 다성담론 시학」, 국학자료원, pp.13~14, 재인용.)

II. 소설의 구조와 양가성

1. 플롯 구조와 양가성

김유정 소설에 내포된 양가적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선, 작품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자는 양가성의 창조 방법을 플롯의 구조와 작중인물의 욕망구조, 그리고 주제의 형상화 방법 등과 연결시켜 탐구하게 될 것이다. 플롯이 소설적 의미를 창조하는 구조화의 원리라면, 인물의 욕망추구 방식은 그 실현태이기 때문이다.

김유정 소설의 플롯은 대체로 의미상으로는 비극적 파국을 암시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상승을 의미하는 이중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반어적 기법은 작중 인물로 하여금 상상을 통해 전도된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듦으로써, 당대의 식민통치가 낳은 이율배반적이고 억압적인 이중구조를 폭로한다.

그의 소설 플롯은 대체로 비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욕망의 추구 방식이나 전개 과정과도 상응하는 모습³⁷⁾을 보인다. 작중인물들이 추구하는 욕망 형태는 대체로 무지한 인물들을 통해 형상화 되는 미해결의 플롯 구조를 활용한 아이러니와 역설 등의 극적 효과를 창조한다.

김유정 소설의 플롯 구조는 대체로 단조롭고 평면적이어서 극적 사건이나 극적 갈등도 거의 없으나, 전체 구조의 차원에서 의미의 뒤집기 전략을 통해 양가성을 창조하는 방식을 쓴다. 이처럼 30년대의 많은 소설이 닫혀진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식민지 체제 하에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닫혀진 구조란 플롯의 형태상으로는 '회귀적 구조'³⁸⁾를 지시한다.

일반적으로, 플롯은 소설의 원재료에 속하는 스토리를 인과관계에 의해 재배열한 것으로서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전개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제, 양가적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플롯의 전개원리와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8편의 텍스트를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37) 김연진(2002). 앞의 논문, p.28.

38) 김용구, 전개서, p.300.

1) 「산골나그네」

이 작품에서 <덕돌>은 <나그네>와의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였으나, 본 남편이 있는 <나그네>는 일시적인 안정만을 원할 뿐이어서 그들은 서로 대립 하게 된다.

텍스트의 의미망을 해체하여 10개의 단락소로 분절하고, 전체 구조 속에서 작용하는 핵심적인 의미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의 기능을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덕돌이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산골 주막에 어느 날 밤 젊은 여인이 들어온다.<나그네의 접근>
- ② 덕돌에미는 남편도 없고 몸 붙일 곳 없다는 여인을 며칠 더 머무르도록 한다.<나그네의 속이기 전략-덕돌에미의 속음>
- ③ 소문을 듣고 주막을 찾는 술꾼들 때문에 덕돌에미는 모처럼 돈푼이나 만질 수 있게된다.<나그네의 속이기 전략-덕돌에미의 속음>
- ④ 덕돌에미는 여인이 덕돌이의 각시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호의적으로 접근한다. <나그네의 속이기 전략-덕돌의 속음>
- ⑤ 여인은 덕돌이와 혼례를 올리고 함께 살게 된다.<나그네의 속이기 전략-덕돌의 속음>(위장결혼)
- ⑥ 어느 날 잠결에 덕돌은 아내가 된 여인이 달아난 것을 알고 찾아 나선다.<덕돌의 속음-자각>
- ⑦ 여인은 물레방앗간에 병들어 누워있던 남편에게 덕돌네에서 훔쳐 온 옷을 입혀 길을 떠난다.<나그네의 속이기 전략-도주>
- ⑧ 남편은 옷이 크다고 투덜댄다.<남편의 무윤리성>
- ⑨ 여인은 갈 길을 재촉한다.<나그네의 떠남>
- ⑩ 뒤에서 덕돌이의 낮익은 음성이 들린다.<덕돌의 추적>

이 작품은 <덕돌에미>라는 산골 주막에 찾아든 남편도 없고 몸 붙일 곳도 없다는 여인을 며칠 더 머무르도록 호의를 베푸는 데서 시작된다. <나그네>로 인해 주막을 찾는 술꾼들 때문에 <덕돌에미>는 모처럼 돈푼이나 만질 수 있게 된다. <덕돌에미>는 <나그네>를 자신의 아들인 노총각 <덕돌>과 결혼을 시키려는 욕망을 갖는다. 이러한 덕돌에미의 욕망은 며느리도 얻고 동시에 돈

도 벌어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이다. 그녀의 욕망대로 <덕돌>은 <나그네>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나그네>의 속임수로 인해서 좌절된다.

한편, <나그네>는 무능하고, 병든 <남편>을 위해서 현실도피를 시도한다. 그녀는 <덕돌>에게 접근하여 위장결혼을 하고, <덕돌>의 의복을 훔쳐서, 병든 <남편>과 함께 도망을 간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나그네의 속이기 전략 구조로 요약된다. 즉 <나그네의 접근>→위장결혼→도주→추적>으로 이어지는 나그네의 속이기 전략을 통해서 작가는 당대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몰고 온 시대적 풍속을 풍자한다. 그러나 <나그네>가 극단적인 궁핍성 속에서 병든 <남편>을 위해 최소한의 도덕과 풍속까지도 파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행동과 그러한 반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로 모순적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가부장 체제하에서 조강지처로서 무능력한 병든 <남편>의 생계를 책임지는 순종적인 여인상과 <나그네>의 전략적 매음은 모순된 양가성을 병치시켜 생성하기 위한 플롯의 구도이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나그네>가 <덕돌>과 사는 것이 병든 <남편>과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남편>에게 다시 돌아와 도피하는 행동은 처음 상태로의 원점 회귀의 플롯 구조를 구축하면서 최악의 궁핍성 속에서도 아직 조강지처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2) 「소낙비」

이 작품은 절대궁핍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의도 아래 노름과 매음을 벌이는 이야기이다.

텍스트의 내용을 9개의 단락소로 분절하여 전체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소의 기능을 로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음산한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산매들린 바람이 눈빛간의 나무들을 뒤흔든다.<소낙비 조짐>
- ② 흥작과 빚쟁이 때문에 도주한 춘호는 살아갈 방도를 위해 노름을 떠올린다.<극한적 궁핍과 삶의 방도 찾기>
- ③ 밀천 2원이 없어 울화가 치민 그는 아내를 때리며 돈을 구해 오라고 으박지

른다. <춘호의 노름밀천 구하기 전략-아내 구타>

- ④ 매를 맞고 뛰쳐나온 춘호의 처는 돈을 구할 방도를 생각하였다.<춘호처의 돈 구하기 전략 모색>
- ⑤ 이 마을 부자인 이주사의 눈에 들어 팔자를 고친 쇠돌어멈네 집으로 향한다.<전략 모색-동기 획득>
- ⑥ 소낙비를 만나 밤나무 밑에서 피하던 중, 아무도 없는 쇠돌어멈 집에 이주사가 들어가는 것을 본다.<전략의 획득>
- ⑦ 춘호처는 이주사 혼자 있을 쇠돌어멈 집으로 들어선다.<전략의 실행>
- ⑧ 그녀는 한 시간쯤 뒤, 다음날 2원을 받기로 하고 이주사와 헤어진다.<아내의 매음>
- ⑨ 이튿날, 춘호는 2원을 얻을 희망에, 아내를 곱게 단장시켜 이주사에게로 보낸다. <춘호의 적극적인 아내 매음 사주>

위의 인용문 ②③에서 <춘호>는 가난한 현실탈출을 위해 노름이라는 파행적 수단을 생각해낸다. <춘호>는 아내에게 구타를 하며 돈을 구해 올 것을 강요함으로써 매음을 조장한다. <춘호>는 <아내>의 매음으로 노름밀천 2원을 마련하여, <아내>와 도시로 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 ④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매를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로써 매음을 생각해 낸다. ⑤ ⑥⑦에서 <아내>는 <이주사>와의 계획적인 매음을 위해 <쇠돌어멈>네 집으로 간다. ⑧에서 <춘호처>는 <이주사>와의 매음을 감행한다. 결말 ⑨에서 <춘호>는 아내를 단장시켜서 <이주사>에게 보낸다. 여기에서의 <춘호처>의 매음은 비도덕적이 방법이지만, <남편>에게 매맞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소낙비 조짐→궁핍 속의 삶 방도 찾기→춘호의 노름밀천 구하기 전략(아내 구타)→춘호처의 돈 구하기 전략 모색→춘호처의 전략 동기 획득→춘호처의 전략의 실행(매음)→춘호의 적극적인 아내 매음 사주>로 이어지는 행위 기능의 배열을 통해서 의미망이 구축된다. 구조의 관점에서 ②는 흥작과 빛이 춘호처에게 환경적인 매음의 동기가 되어준다면, ③④⑤는 그 동기의 구체화에 해당된다. ⑥이 춘호처에게 매음을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제공하고 ⑦은 그러한 전략의 실행과정이며 ⑨는 춘호가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아내의 매음을 사주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소설은 절대적인 궁핍한 생활로부터의 탈피를 위해(목적), 아내의 매음을 사주하는

(수단) 이윤배반적인 모순된 행동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소설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매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탈윤리적인 원점 회귀의 플롯 구조로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대의 궁핍한 현실의 타개가 서민들에게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는 시급한 과제였음을 암시한다.

3) 「노다지」 39)

이 소설 속에서 <꽂보>와 <더필>은 잠채⁴⁰⁾를 공모한 의형제 사이로서 노다지가 발견되자 극단적인 소유욕을 보여주며 배신하는 이야기이다.

전체 내용을 6개의 단락소로 분절하여 전체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소의 기능을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꽂보와 더필이가 깊은 산 속의 가을밤에 잠채를 위해 산에 오른다.<잠채 공모 산행>
- ② 꽂보의 무서운 기억 장면이 서술된다.<고통스런 기억 환기>
- ③ 둘은 잠채를 하기 위해 밤이 이슬하도록 기다린다.<잠채를 위한 기다림>
- ④ 잠채 굴로 들어가 꽂보가 노다지를 발견하자 그를 밀어내고 더필이가 금을 캐면서 무례하게 군다.<노다지의 발견과 본능적 소유욕 발현>
- ⑤ 꽂보는 힘센 더필이에게 공포심과 적대감을 가진다.<꽂보의 경계심>
- ⑥ 그때 동발이 무너지면서 더필이가 구덩이에 갇히자 꽂보는 금을 챙기고 혼자 빠져나와 산을 내려간다.<꽂보의 배신>

39) 노다지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고아물이 많이 묻혀 있는 광맥이다. 영어의 노터치(no touch)를 뜻하는 것으로 노다지판이라 할 때는 어떤 광맥에서 광물이 쏟아져 나오는 판국을 가리킨다. 노다지라는 낱말을 소설화하여 노다지판의 비인간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김유정의 노다지는 노다지라는 낱말의 소설적 이해를 돕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40) 잠채꾼이란 남의 금점(금광)에 몰래 들어가 '감(광석)'을 훔쳐내는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여기저기 금점을 찾아 떠돌아다닌다. 그들은 대개 한때 소작농이거나 머슴살이 살던 자들인데 금광바람이 불자 한 순간의 형제, 곧 '노다지'를 꿈꾸며 농촌을 떠나 금이 나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않고 찾아다닌다. 따라서 그들은 몹시 거칠고 금 앞에선 동료끼리의 의리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린다. 한마디로 금에 대한 탐욕으로 몽쳐진 자들이다.(류종열(1998), "일제 강점기의 '금 모터프' 소설 연구 (I)-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오대어문집」 제13집, p.158.)

이 작품은 황금을 매개로 한 욕망의 변화 구조를 보여준다. 작품의 결말부에서 동발이 무너지는 사고로 반전을 가져오지만, 노다지가 발견되는 순간 이들은 협조자로서의 욕망을 버리고 배신자로서의 욕망을 지향하는 양가적 특성을 내보인다. 황금을 캐던 힘센 <더펄>이 무너진 동발에 깔려버리자, 그에게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하던 <꽂보>가 황금을 갖고 도망감으로써, <꽂보>와 <더펄>의 운명은 뒤바뀌게 된다. 이처럼 황금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 앞에서 형제의 의리마저도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잠재 공모 산행→노다지 발견과 본능적 소유욕 발현→배신>으로 이어지는 행위의 구조 속에서 극한적 빈곤과 황금 앞에서 의형제의 윤리가 파괴되는 이율배반적 모순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황금 앞에서 의형제의 윤리마저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동(경과) 보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극한적 궁핍상황(원인)에 대한 고발에 소설적 의미의 비중이 실리게 된다.

4) 「金따는 콩밭」

이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은 낙관적 전망을 암시하는 ‘과거-현재-미래’의 계기적 형태를 따르는 대신 비계기적 구조로 짜여져 있다. 전체 내용을 9개의 단락소로 분절하여 전체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의 기능을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수재가 콩밭의 금을 캐자고 감언이설로 영식을 유혹한다.<유혹>
- ② 영식은 처음에는 반대 했으나, 수재와 아내의 부추김으로 허락한다.<수락>
- ③ 영식은 수재와 함께 콩밭을 파헤치고 금을 찾기 시작하였다.<금 찾기>
- ④ 영식은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 너머의 금맥이 콩밭으로 흐를 것을 기대한다.<기대>
- ⑤ 영식은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밭을 파고 있었다.<금맥 찾기>
- ⑥ 금이 나오면 부유하게 살아가려는 꿈에 부풀어 있다.<부자의 꿈>
- ⑦ 아무리 해도 금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불길한 예감>
- ⑧ 수재는 금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흙 속에도 금이 있다고 말한다.<변명>
- ⑨ 그날 밤 도망을 칠 것이라고 마음먹는다.<도주다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영식>은 농사를 지어 봐도 늘 빛에 쪼들리는 소작농이다. 어느 날 <수재>가 황금을 매개로 하여 <영식>을 꼬임에 빠뜨린다. <영식>은 황금의 추구로써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그것은 절대 궁핍으로부터의 탈출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욕망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다시 처음의 상황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⑨에서 약삭빠른 <수재>는 콩밭을 망침으로써 벌어지는 <영식>의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망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유혹→수락→금 찾기→기대→금맥 찾기→부자의 꿈→불길한 예감→변명→도주 다짐>으로 구축되는 의미망 속에서 플롯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김유정 소설에서의 플롯의 시간은 미래를 향한 진행이 아니라, 역 진행됨으로써 최초의 출발상황으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보인다. 즉 욕망과 시간의 순환 구조는 그의 소설에서 원점회귀와 반복의 플롯 구조⁴¹⁾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제식민 체제 하의 희망 없는 시대상황을 담아내기 위한 전략이자, 대립적인 욕망의 양가성을 드러내기 위한 구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은 희망 없는 시대상황과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파괴의 실상을 인과적 논리를 통해서 증언한다고 할 수 있다.

5) 「만무방」⁴²⁾



이 작품에서 소작농 <응오>가 지은 벼가 도난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플롯은 <응오>의 형 <응칠>이가 도둑을 잡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내용을 11개의 단락소로 분절하여 전체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의 기능을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가을날, 전과 4범이요 만무방인 응칠이는 깊은 산골에서 송이 파적이나 하고 있다. <응칠의 만무방적 삶>
- ② 응칠은 송이를 캐어 맘껏 먹고 고기 생각이 나자 남의 닭을 잡아먹는다.<응칠의 만무방적 성격>
- ③ 응칠은 성팔이를 만나 응오네 논이 벼가 도둑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팔이

41) 김연진, 앞의 논문, p.48.

42) 1935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소설이다. '만무방'이란 "예의와 염치가 없는 악한", "딱 되어 먹은 사람"을 의미한다.

를 의 심한다.<성팔이를 의심함>

- ④ 응철은 5년 전 처자식이 있는 성실한 농군이었으나, 빚 갚을 능력이 없어 야반도주 했다가 동기간이 그리워 응오를 찾아왔다.<응철의 귀향>
- ⑤ 모범청년인 응오는 벼를 베지 않고 있다가 도적을 맞게 된다.<모범청년 응오의 수난>
- ⑥ 동생 응오는 반쯤 송장이 된 아내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약을 달이기도 하고 산치성을 올리려고 하여 극구 말렸으나 대꾸도 않고 반발한다.<응오의 지극한 아내 병 간호>
- ⑦ 응철은 오늘 밤 도둑을 잡은 후 이곳을 뜨기로 결심한다.<도둑 잡을 결심>
- ⑧ 응철은 도둑을 잡으러 산고랑 길을 오르다, 굴속에서 벌어진 노름판에 끼었다가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한다.<잠복>
- ⑨ 응철은 몽둥이로 도적의 허리개를 내리쳐 복면을 벗기니 동생 응오였다.<응오의 도적질>
- ⑩ 응철은 황소를 훔치자고 동생을 달랬지만, 응오는 뿌리쳤다.<응철의 도둑 제의 거부>
- ⑪ 달아나는 응오를 쓰러뜨린 뒤 아우를 업고 고개를 내려온다.<동생을 업고 내려옴>



이 소설은 성실하고 진실한 산골의 농군들이 극한적인 궁핍으로 도둑질을 하는 악순환 속에서 만무방이 되어가는 이야기이다. 만무방이란 “염치가 없는 악한”이나 “막 되어 먹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플롯은 만무방적인 삶을 살아온 <응철>의 눈을 통해 진실한 모범 청년이었던 아우 <응오>가 만무방이 되어가는 비극적 현실을 고발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귀향한 응철의 만무방적 삶 관찰→응오의 벼 도난 사건→응오의 아내 병과 궁핍해진 삶→응철의 잠복→만무방이 된 응오 발견→응오를 업고 하산하며 비애 느낌>의 이야기 구조를 통해 타락해 가는 농촌현실을 고발한다. 이러한 농촌현실의 피폐화는 근본적으로 궁핍한 생활에서 비롯된 도둑질의 악순환과 그로 인한 만무방적 삶의 유행으로 확산된다. 여기서 작가는 <응오>의 모순된 두 가지 행동인,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한 돈의 획득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진행되는 비양심적인 만무방적 행동(수단)을 양가적 행동구조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봄·봄」

이 작품은 <나>와 <장인> 사이에 벌어지는 의지의 대결 구조를 보여준다. 이 소설은 결말이 절정의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역순행적 구조에 의해 조직된 작품으로서 전체내용을 10개의 단락소로 분절할 수 있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소의 기능을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점순이와의 결혼약속을 믿고 3년 7개월간 일 해 주었으나 결혼 시켜주지 않음.<오늘-장인의 약속 위반>
- ② 배 아프다는 핑계로 모봇기를 거부하자, 장인이 뺨을 때림.<어제 낮-충돌1>
- ③ 내가 늦잠 자며 일을 거부하자, 장인이 가을의 성례를 약속함.<작년 봄-장인의 성례 약속>
- ④ 점순이가 성례를 재촉 않고 일만 하는 나를 비난함.<엿그제-점순의 비난>
- ⑤ 장인이 구장을 통해서 성례를 약속하자, 나는 모봇기를 계속함.<어제-협상>
- ⑥ 장인과 싸운 것을 후회한다.<오늘-후회>
- ⑦ 몽태가 일만 해주는 나를 비난함.<어제-친구의 비난>
- ⑧ 점순이가 나를 비난하자, 일을 나가지 않는 나를 때리는 장인을 밭 아래로 굴러 버림.<오늘-충돌2>
- ⑨ 내가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자 올 가을 성례를 약속하므로 눈물을 흘리며 일터로 나감.<과거-장인의 성례 약속>
- ⑩ 나는 장인과의 충돌시에 점순의 기대 밖 행동에 기가 꺾임.<오늘-점순의 의외 행동에 실망>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우직한 <나>의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노동력 착취 전략으로 악용한 당대 농촌의 데릴사위제의 모순을⁴³⁾ 고발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이 작품의 사건의 진행은 시간착오기법 중 역전기법을 활용하여 <나>와 <장인>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학을 창조한다. 중심인물인 <나>는 <장인>의 약속위반으로 <점순>과의 결혼 희망이 좌절을 겪게 되지만, 시간이 경과되어도 그 성격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인물이다. ⑩의 <나>와 <장인>과의 극한적인 대결상황에서 <점순>이가 아버지의 편을 들으로써 결혼에 대한 욕망은 좌절을 맞는다. ⑨에서 <장인>이 <나>에게 한 <점순>과의 결혼 약

43) 김해옥(1999), 「한국 현대 서정 소설론」, 새미, p.218.

조는 일시적인 속임수로써 결국, 미완의 결말로 끝나게 함으로써 처음 상태로 회귀하는 플롯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나>와 <장인>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와의 대결과 충돌과정에서 화해하는 양가적 모순을 보인다. <나>는 점순과의 결혼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장인>과의 충돌과정에서 화해를 하게 되고, <장인> 또한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나>에게 <점순>과의 결혼 약속을 하는 이중적 심리구조를 보인다.

7) 「동백꽃」 44)

이 작품은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화해의 계기를 찾는 단순 플롯 구조를 보여준다. 텍스트를 12개의 단락으로 분절하여 전체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소의 기능을 요약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① 점순이네 수탉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우리 닭의 면두를 쪼아 선혈이 낭자했다.<닭싸움-점순의 반동형성적 구애 전략>
- ② 나흘 전, 점순이가 내 등 뒤로 와서 더운 감자를 내밀자, 그녀의 손을 밀어버렸다. <감자 거절-점순의 애정표현 거절>
- ③ 독이 오른 점순이는 화가 나서 눈물까지 흘리고는 획 돌아서 갔다.<점순의 분노와 비애>
- ④ 다음날 점순이는 봉당에 앉아 우리 집 씨암탉을 때리고 있었다.<점순의 분노 표현-구애 표현 전략>
- ⑤ 점순이는 또 우리집 닭과 자기네 닭을 싸움 시킨다.<닭싸움>
- ⑥ 나는 우리집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닭과 싸움을 붙였다.<나의 오기>
- ⑦ 점순이는 바윗돌 틈에 동백꽃을 깔아놓고 앉아 닭싸움을 보며 호드기를 붙고 있다. <점순의 여유-애정표현 전략>
- ⑧ 약이 오른 나는 점순이네 수탉을 한번에 때려죽인다.<나의 분노-점순의 전략(반전 동기)>
- ⑨ 점순이가 눈을 홑뜨고 내게 달려든다.<점순의 위협-점순의 전략>

44)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백꽃은 빨간 동백꽃이 아니고 노란색의 동백꽃이다. 노란 동백꽃은 우리나라 전역에 진달래와 함께 피는 꽃나무이다. 김유정의 소설에서 제목으로 사용된,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이 노란 동백꽃은 생강나무이다.

- ⑩ 나는 점순이의 제안에 약속한다.<타협-점순의 전략(반전 조짐)>
- ⑪ 노란 동백꽃 속에서 나는 점순이의 향긋한 냄새에 정신을 잃는다.<포용-점순의 사랑 수용-점순의 전략 성취(반전)>
- ⑫ 이때 점순이는 어머니의 부름에 기어서 내려가고, 나는 산으로 내뺀다.<갈등 조짐-사랑의 장애물 암시>

위의 작품 ①에서 닭싸움은 <나>와 <점순>의 갈등의 표면화이면서, <점순>이가 <나>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의 반동형성적 표현이다. 여기서 반동형성이란 속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④⑤는 며칠 전 감자 사건으로 <점순>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 발단이 된 닭싸움이지만 이 또한 점순의 반동형성적 애정표현 전략과 관계된다. <점순>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앙갚음으로 또 다시 닭싸움을 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의 내적 성숙과정은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나>와 <점순>의 대립구조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닭싸움을 매개로 한 갈등 구조는 점순의 반동형성적 구애 전략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⑧에서 <나>는 자신을 연속적으로 괴롭히는 <점순>에 대한 미움으로 <점순>네 닭을 찾김에 죽이고 만다. ⑨⑩은 <나>가 <점순>네 닭을 죽인 것을 빌미로 자신의 구애전략에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반동형성적 타협안이다. 그리고 ⑪은 그런 타협을 통해서 <나>가 <점순>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의 사랑을 수용하는 장면으로서 클라이막스적 상황을 이룬다. 이것은 <나>가 성적으로 무지의 상태에서 인식의 세계로 이입하는 통과 의례적 성숙의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분류이론에 따르는 것으로 '통과제의'의 문턱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시험적 통과 의례 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통과 의례 소설⁴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젊은이가 외부 세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생생한 지식을 획득하기까지의 통과 과정을 다룬 작품이며, 다른 하나는 자아 발견과 관련된 삶과 사회에의 적응을 다룬 작품이다. 두 가지는 모두 새로운 사실이나 악의 발견을 통해 주인공을 성인 사회로 유도해 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작품의 결말인 ⑫에서 <점순>과 <나>가 동백꽃에 묻힌 사건을 비밀로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자 달아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45) 김병욱 편, 최상규(1983),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p.464.

<만남→시련→지각>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통과 의례 소설의 플롯 구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애의 심리를 반동형성적으로 표현하는 반어적 구조에 의해 창조된다고 할 수 있다.

8) 「땡별」

이 작품은 도시로 이사 온 이농민인 <덕순> 부부의 이야기이다. 텍스트를 11개의 단락소로 분절하여 전체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소의 기능을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덕순이는 땡별 속에서 아내를 지게에 지고 대학병원을 찾아간다.<병원을 찾아감>
- ② 기영이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면 월급도 주고 병도 고쳐 준다고 말을 한다.<무지로 왜곡된 인신매매 정보 획득>
- ③ 열네 살 된 조선아이가 어른보다도 더 부대한 것을 보고 이상한 병이라고 생각한다.<무지로 인한 왜곡된 인식>
- ④ 그 아이에게 한 달에 십 원씩 월급도 주고, 먹이고 입히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믿는다.<무지로 인한 왜곡된 인식>
- ⑤ 덕순이가 아내를 지고 산부인과에 들어간다.<산부인과 입실>
- ⑥ 의사는 아내 뱃속의 어린애가 나오려다 죽었다며 수술을 하지 않으면 1주일도 못가 죽는다는 것이다.<의사의 진단>
- ⑦ 덕순이는 간호사가 툭 쏘는 바람에 기가 죽고 만다.<왜곡된 정보 인지>
- ⑧ 수술을 거부하는 아내를 다시 지게에 지고 나오는 덕순의 걸음은 무겁다.<덕순의 절망>
- ⑨ 아내는 쌀 빛과 옷 빨래를 유언으로 남긴다.<아내의 유언>
- ⑩ 덕순은 뜨거운 땡별 아래 땀을 흘려 가며 아내를 지고 내려온다.<절망과 고통>

이 소설은 두 가지 극한적 조건 속에 살아가는 소시민의 이야기이다. 즉, 무지한 소시민적 상황과 극한적 궁핍의 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삶의 조건과 환경이 주인공에게 건디기 어려운 땡별의 상황이 된다. 전자는 연

구용 비윤리적인 인신매매 정보를 잘못 인지하여 병원을 찾는 행위 속에서, 그리고 후자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돈을 얻으려는 절대적인 궁핍의 상황 속에서 이 소설은 구조화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무지로 인한 왜곡된 정보획득→아내의 병원 행→의사의 진단→왜곡된 정보 인지→절망과 고통>으로 조직된 의미망을 통해 구축되는 환멸의 플롯⁴⁶⁾으로 볼 수 있다. N.프리트만에 의하면, 환멸의 플롯이란 주인공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그 신념까지 버리게 되는 이이게 구조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비록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내의 병도 고치고 돈도 벌고자 하는 행동(목적)과 병든 아내를 연구용으로 팔려는 몰가치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수단)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순된 양가적 삶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도 고치고 팔자도 고치려던 꿈의 좌절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덕순>에게 당부하는 서글픈 유언은 도시 이농민의 절망적인 삶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비인륜적인 행동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궁핍한 현실의 매정함을 폭로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쇠뿔도 녹일듯한 뜨거운 땀별 아래” 아내를 지고 되돌아오는 발걸음이 처음의 상태처럼 다시 무거워짐으로써 ‘절망-희망-절망’이라는 원점 회귀적 서사구조를 구축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김유정의 소설은 표층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의 전도 구조에 의해 양가성을 창조하거나, 모순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원점 회귀적 서사구조를 통해 이중적 의미의 양가성을 형상화한다. 농민이거나 혹은 농촌 출신의 도시 하층민인 주인공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소망 성취를 시도하지만, 식민 통치하의 현실의 두터운 벽에 의해 부딪혀서 좌절되고 만다. 따라서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순박하고 무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욕망이 성취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파행적 수단으로 현실을 탈출하려다 좌절하는 비극적 구조나 아이러니와 풍자

46) 근대에 대한 환멸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주된 정조로서 소설 구성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환멸은 자기 개발의가능성이 그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단혀 버리고, 반면 주체의 잉여인간으로서의 삶이 외부와 단절되고 내부를 향해 확장되면서 생겨난 의식이다. 대개 환멸소설(Desillusionsroman)에서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영혼과 세계 사이의 낯설음이 확대된다. 환멸(소설)의 구조는 ‘희망’과 ‘절망’ 사이의 양극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즉, 대립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아는 외부 현실에 대하여 자신이 가치나 이상을 고수하려 하지만, 좌절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보존하고자 하고자 하는 ‘윤리적 이상주의’가 환멸의 구조 속에는 존재한다.(위르겐 슈람케, 『현대소설의 이론』, 원당희, 박병화 역(1995), 문예출판사, pp.86~91.)

구조의 희생물들이 된다.

이제,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의 추구하는 양가적 상황을 그들의 욕망구조의 탐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차례이다.

2. 인물의 욕망과 양가성

작중인물의 욕망 대상(목표)은 주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건과 행동을 이끄는 서사적 지향점이며, 나아가 문학적 상징과 의미를 낳게 하는 욕망의 지표가 된다. 그러한 욕망을 이끌고 조절하는 미적 통제자는 외적으로는 텍스트의 플롯을 조직한 작가의 창작의도라고 볼 수 있지만, 작품 내적으로는 플롯의 기능 작용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텍스트 구조 자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작중인물의 욕망 연구는 플롯의 미적 조절적용과 기능을 해명하는 필연적인 한 과정과 방법⁴⁷⁾도 될 수 있다.

김유정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양태는 다양하다. 인물들의 다양한 행동은 바로 그들 내부의 '욕망'에 의해서 야기되고, 그들의 '존재'로서의 본질적 모습은 그 '욕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드러나기 마련이다.⁴⁸⁾ 이러한 김유정의 소설에서 욕망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지향을 담고 있으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항대립적인 틀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존 방식으로서의 양가성을 체현하는 주체, 즉 이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김유정 소설의 욕망은 근대적인 삶의 구조에 대한 대립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⁴⁹⁾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방법으로 도박, 매음, 잠채, 도둑, 인신매매, 들병이를 주로 택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궁극적인 욕망은 궁핍한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욕망 체계를 욕망주체와 욕망의 중개자, 욕망의 목표가 그려내는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 이 구조도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욕망의 중개자'의

47) 안성수(2001),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백록어문17』, 백록어문학회,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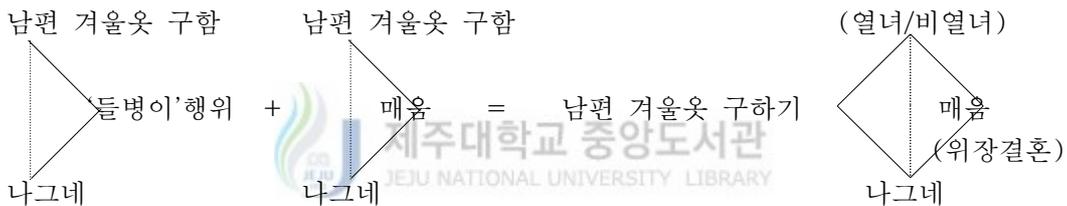
48) 이순(1986), 앞의 논문, p.27.

49) 김혜영, 전계서, p.167.

기능과 위상이다. 여기서 중개자는 르네지라르⁵⁰⁾이 주체의 모방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협조자나 인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중개자의 기능과 위상을 설정할 경우, '중개자=주체의 모방 대상'이라는 등식에서 해방됨으로써 욕망탐구의 가능성을 거의 모든 소설에 확대할 수 있다.⁵¹⁾

1) 「산스플나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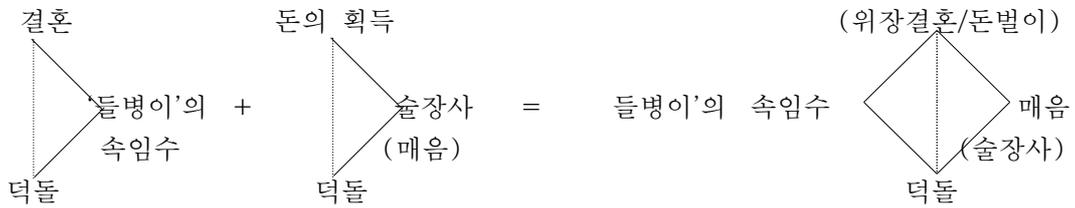
이 작품에는 김유정 소설의 독특한 인물형인 '들병이'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욕망구조는 '나그네'의 욕망과 '덕돌'의 욕망 체계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이들의 이중적 욕망의 양가성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욕망도에서 보듯이 <나그네>는 병든 <남편>의 겨울옷을 구하고자 하는 긍정적 욕망을 갖는다. 그러나 들병이가 된 <나그네>는 <덕돌>과의 매움과 위장결혼을 통하여, <덕돌>의 의복만을 훔치고 병든 <남편>과 야반도주를 하고자 하는 반윤리적인 모순된 욕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가성을 함유하고 있다. 다음은 <덕돌>의 욕망 추구 방식이다.

50)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은 소설의 욕망 분석을 위한 전형적인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의 '욕망의 삼각형'은 주체(s)와 중개자(m), 그리고 대상(o)을 세 꼭지점으로 하여 이등변 삼각형을 세워놓은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지라르의 욕망도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불행한 인간의 구조적 존재상황을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분석의 차원에서, 욕망의 삼각형은 작중인물의 수만큼 그려낼 수 있어서 소설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안성수, 전계서, pp.11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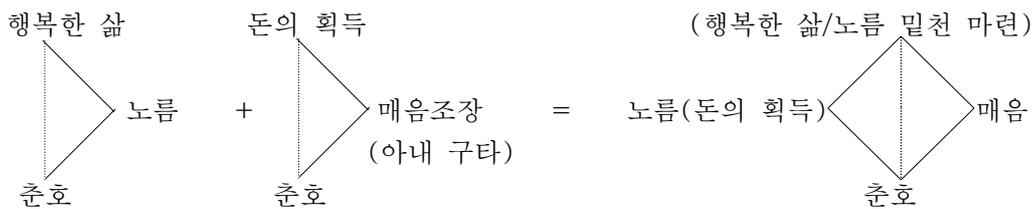
51) 안성수, 전계서, p.115.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덕돌>은 <나그네>가 과부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혼의 욕망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는 들병이와 결혼을 하여 아내도 얻고 술장사를 하여 돈을 벌고 경제적인 풍요의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으로써 반윤리적인 이중적 욕망의 소유자임이 밝혀진다. 이러한 <덕돌>의 욕망은 <나그네>가 자신의 옷을 훔치고 야반도주함으로써 <나그네>의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속임수였음을 인식하고 좌절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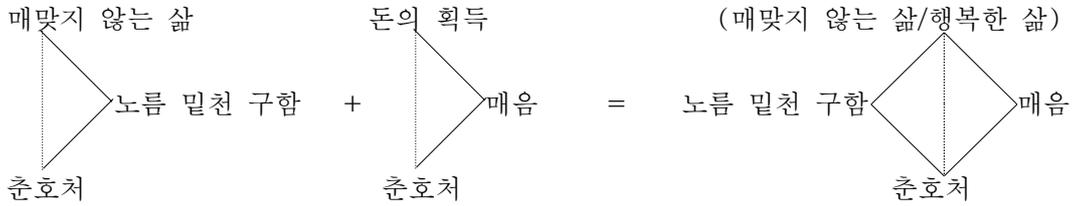
2) 「소낙비」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욕망구조를 보면 '춘호'의 욕망, '춘호처'의 욕망, '이주사'의 욕망 체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이들의 이중적 욕망의 양가성을 삼각형의 욕망구조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춘호'의 욕망추구 방식이다.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춘호>는 굶주림과 빚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낯선 산골 마을을 찾아든 유랑민이다. 그는 노름으로 돈을 벌어서 아내와 행복한 서울 생활을 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노름밀친을 위하여 <춘호>는 아내를 구타하면서 매음을 조장하는 이중적 욕망의 인물이다. 다음은 '춘호처'의

욕망추구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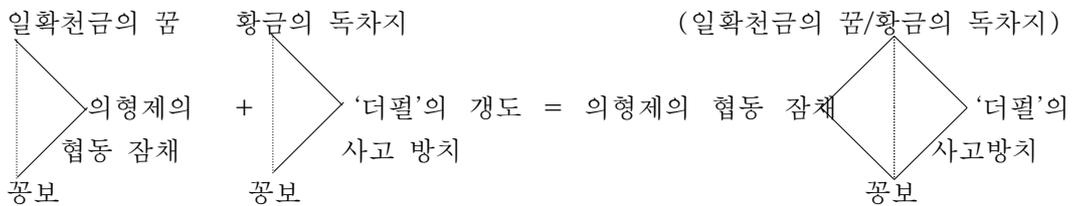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춘호처>의 양가적 욕망은 남편의 구타와 그에 대한 변신 욕망이 결합되면서 생성된다. <춘호처>는 자신의 고통스런 매음이 '돈'의 획득임과 동시에 남편과 매 맞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양가적 가치로 수용한다.

이와 같이 「소낙비」의 인물들의 욕망은 각기 다르지만, 저마다의 양가성을 추구하는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살펴 볼 때 이 소설은 궁핍한 삶의 극복이라는 긍정적 가치(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탈윤리적인 부정적 가치(수단)를 양가적으로 추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임이 증명된다.

3) 「노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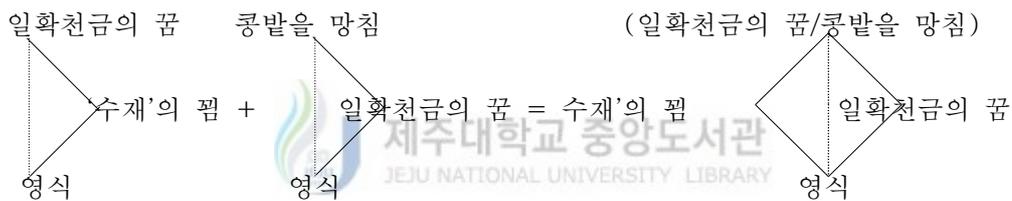
이 작품은 잠채꾼(금점꾼)들의 유랑적 삶과 탐욕의 비극을 통해 황금광을 쫓던 당대의 풍속도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등장인물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욕망과 외적 욕망과의 대결 구조를 보여준다. 주인공인 '꽂보'의 욕망체계를 통해 이중적 욕망의 양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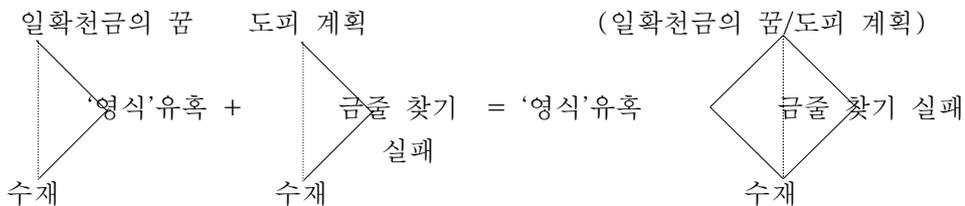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꽂보>는 <더필>과 의형제를 맺고 <더필>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잠재로 돈을 벌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부에서 막상 황금을 발견하게 된 상황 속에서 개도가 무너지는 사고로 <더필>이 동발에 깔리자, <꽂보>는 의형인 <더필>의 죽음을 방치한 채 황금을 챙겨 도망치고 독차지함으로 배신을 하게 되는 이중적 욕망의 인물이다.

4) 「金따는 콩밭」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욕망구조는 '영식'의 욕망과 '수재'의 욕망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이중적 욕망의 양가성을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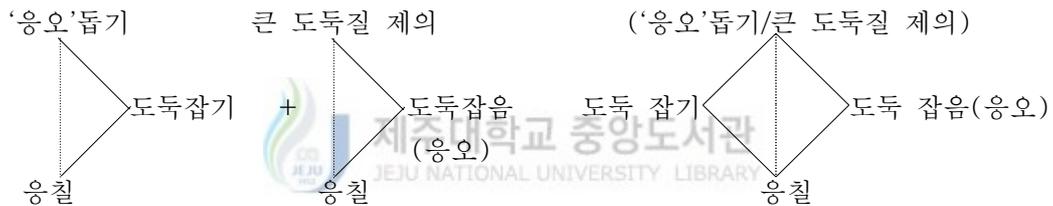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영식>은 어리석은 탓에 남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가난한 농민으로서, 어느 날 <수재>의 꿈에 빠져 일확천금의 허망한 욕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영식>은 콩밭에서 황금을 캐려는 어리석은 욕망으로 인해 콩밭을 망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결국 <영식>은 콩밭을 망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양가적 행동의 인물이지만, 이런 결과는 작중인물들의 무지와 극한적인 궁핍의 시대상이 물고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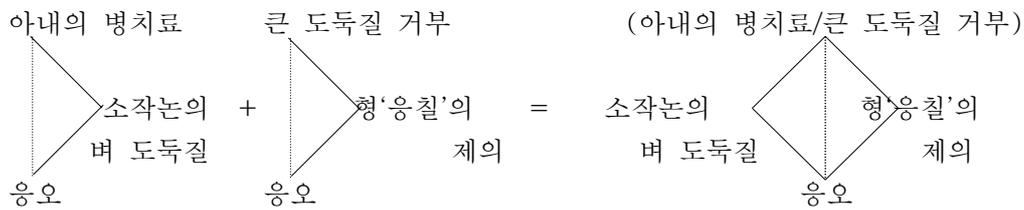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수재>는 <영식>에게 콩밭에 금줄이 있다고 부추기면서 <영식>의 욕망을 자극한다. 처음에 <수재>는 자신도 금이 나올 줄 알고, <영식>과 함께 콩밭에서 금을 캐고자 하는 욕망을 갖으나, 금이 나오지 않자, “금줄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동시에 <영식>의 후탈이 겁이 나서 도망갈 계획을 하는 양가적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

5) 「만무방」

이 작품은 자신의 논의 벼를 자신이 훔치는 현실의 질곡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욕망구조는 ‘응칠’의 욕망과 ‘응오’의 욕망체계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이중적 욕망의 양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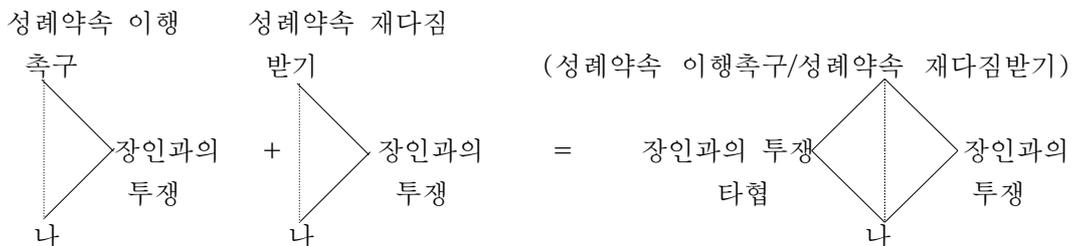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응칠>은 귀향한 전과자로서 벼가 없어진 사실 때문에 부당하게 혐의를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는 자신의 명예회복과 동생 <응오>를 도와주기 위해 <응오>네 논의 벼를 훔쳐간 도둑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 마침내 <응칠>은 현장잡복을 통해서 도둑을 잡았으나, 그 도둑이 바로 <응오>였기 때문에 그의 욕망은 좌절되고 만다. 그러나 <응칠>은 동생 <응오>의 가난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를 훔치자고 제의함으로써 이중적인 욕망을 보이는 인물이다. 이러한 사심은 당대의 시대적 환경이 소시민의 무지와 극도의 궁핍으로 인해 가치관이 혼란기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된다. 다음은 ‘응오’의 욕망 추구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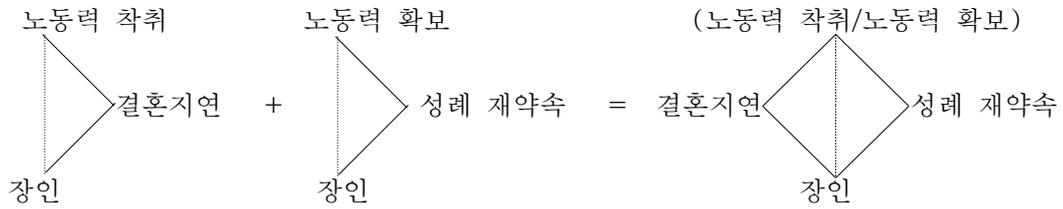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응오>는 가난하고 착실한 모범청년이였다. 병든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은 벼를 훔치려는 욕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형 <응칠>에게 발각되어 좌절된다. 그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였지만, <응칠>의 도둑질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도둑질한 도둑이면서 더 큰 도둑질을 거부하는 양가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6) 「봄·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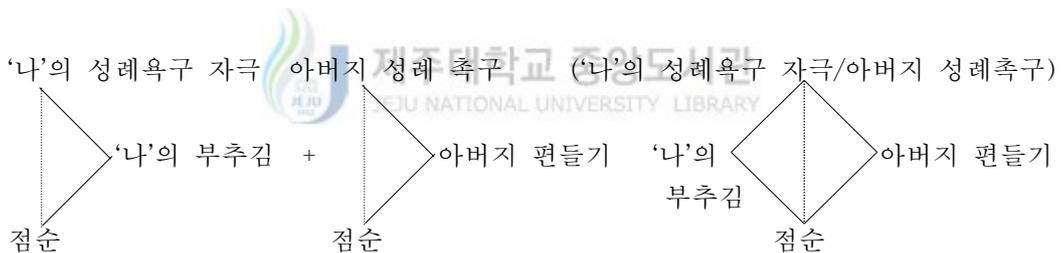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욕망구조는 '나'의 욕망, '장인'의 욕망, '점순'의 욕망체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인물들이 보이는 욕망의 양가성을 도식화하여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위의 욕망체계에서 보듯이 <나>는 <장인>에게 <점순>과의 성례약속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력을 매개로 투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장인>에게 성례약속을 재다짐 받기 위해 타협을 하는 심리적 이중성을 보여준다. 다음은 '장인'의 욕망추구 방식이다.



위의 도식에서 <장인>은 교활하여 결혼을 핑계로 부족한 노동력을 무보수로 충당하려는 내적욕망을 갖는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시켜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나>에게 결혼시킬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회유책으로“올갈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라고 약조하는 위선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장인>은 <나>의 욕망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반윤리적인 이중적 욕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점순’의 욕망추구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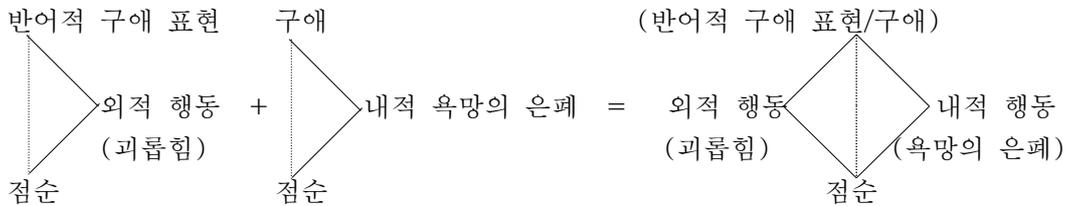


위의 도식에서, <점순>은 두 가지의 성례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첫째는 <나>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성례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며, 둘째는 아버지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는 방식으로 성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중전략을 사용한다.

7) 「동백꽃」

이 작품은 청소년기의 인물을 내세워 사랑이 통과 의례적 상황을 형상화한 소설로써 ‘점순’의 욕망체계를 통해서 그녀의 심리적 양가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소설에서 <점순>은 <나>에게 구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반동형성 (reaction formation)적 수법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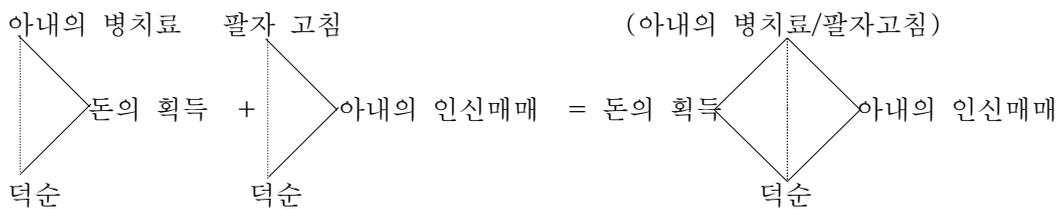


위의 도식에서, 조숙하여 성(性)에 일찍 눈을 뜬 <점순>은 <나>에게 반동형성적 구애 전략을 편다. 겉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대결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에게 구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욕망이 숨어있다. 여기서 <점순>의 구애 전략이 표리부동한 반어적 형식을 띠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의 차이(마름과 소작농)와 청소년기 특유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8) 「땡벌」

이 작품은 무지한 도시 이농민이 아내의 병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꿈꾸다가 좌절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는 '덕순'의 이중적 욕망을 살펴봄으로써 욕망의 양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도식에서 <덕순>은 <기영 할아버지>의 허위적인 말에 속아 허황된 욕망을 갖게 된다. <덕순>은 병든 <아내>의 몸을 상품화하여 연구용으로 인신매매하고, 그 돈으로 <아내>의 병을 고치고 동시에 궁핍에서 벗어나 팔자를

고쳐 보려는 모순된 이중적인 욕망 소유자이다. 그러나 <덕순>은 <기영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아내의 병든 몸을 상품화하여 궁핍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생각이 반윤리적이고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는 좌절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욕망추구의 공통점은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파행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중인물의 욕망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언제나 좌절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일제식민 체제 하에서 동요되거나 반항으로 또 다른 이중적인 욕망의 양가성이 드러나며, 현실적 모순이 되풀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양가성의 표출방법에 대하여 살펴 볼 차례이다. 작가가 어떤 기법을 활용하여 양가적 의미를 어떻게 창조하였는가를 탐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아이러니와 역설, 패러디 기법을 살펴보고, 양가성의 유형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양가성의 표출 방법과 소설적 의미

1. 아이러니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김유정은 원점 회귀 플롯이나 반동형성적 구조, 혹은 환멸의 플롯 등을 통해서 양가성의 의미를 형상화 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러한 구조의 틀 속에서 어떤 기법을 동원하여 양가적 의미를 창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기술의 목표를 두게 된다. 먼저, 미적 범주 안에서 아이러니의 기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양가성의 대표적인 표출 방식으로 ‘아이러니(irony)’를 들 수 있다. 아이러니의 어원⁵²⁾은 그리스어 에이로네이아(eironeia)로서 변장의 기술을 뜻한다. 수사학에서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특정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표현된 것’과 ‘의미된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소설의 아이러니는 외양과 실제의 대조에서 발생한다. 소설 속의 세계는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된 ‘모방된 현실’이다. 따라서 작가와 작중 인물(혹은 화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에 필연적으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⁵³⁾

현대의 신비평가를 중심으로 많은 이론가들은 아이러니를 내포한 문학이 그렇지 않은 문학보다 우수하다고 믿는다. 그 까닭은 아이러니가 문학 작품 안에 묘사되어 있는 인생의 체험을 한 면만 보지 않고 그 정반대의 면도 함께 보고,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⁵⁴⁾이다.

이처럼 작품이 아이러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문학적 의미가 이중적이라는⁵⁵⁾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이중성은 작품의 의미작용의 범주가

52) 아이러니를 흔히 ‘반어(反語)’로 번역된다. 이때의 ‘反’은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했다. 곧 반대말이 아니라 돌아가는 말인 것이다. 아이러니의 어원의 배경에는 고대 희곡의 인물유형을 대표했던 ‘에이론(Eiron)’과 ‘알라존(Alazon)’이 있다. ‘에이론’은 외형상 약하고 겸손하고 못한 체하지만 영리하고 ‘알라존’은 강하고 오만하고 잘난 체하지만 우둔하다. 그래서 에이론은 겉으로는 항상 알라존에게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관객의 예상을 뒤엎고 알라존을 굴복시키거나 골탕 먹인다.

53) D.C.Muecke(1980), 「Irony」,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p.61.

54) 이상섭(1981), 「아이러니」, 「문학비평용어사전」, 문예출판사, p.191.

55) 게오르그 루카치(1985),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pp.9~120.

극대화될 때 한층 확대될 수 있다. 아이러니가 희극적인 의미와 비극적 고통의 양가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을 때 그 미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도 이런 데서 연유한다.

김유정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빚어지는 삶의 궁핍상을 아이러니한 세계관으로 형상화시킨 대표적 작가이다. 그의 해학은 단순한 웃음의 해학이 아니라, 소설의 구조화에 깊이 관여하는 해학이며 비극을 희극화 하는 이중구조로서의 아이러니의 성격을⁵⁶⁾ 띤다. 또한 그의 소설은 표면으로 드러난 의미와 그 이면에 내재된 의미가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는 아이러니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일제 식민통치가 물고 온 당대의 시대상과 상동구조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여러 유형⁵⁷⁾으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서는 김유정이 양가적 의미의 표출방식으로서 사용 빈도가 높은 '상황의 아이러니'와 '언어의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한다.

1) 상황의 아이러니

흔히, 상황의 아이러니는 서사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과 관련된다. 이 유형은 아이러니스트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나 관찰자는 언제나 존재하는 아이러니로서 '비의도적 아이러니(unintentional irony)'라고도 불린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자신도 똑 같은 불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떠들썩하게 웃어댈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아이러니에는 극적 아이러니, 무의식적 자기

56) 정영호(1991), "김유정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57) 아이러니는 크게 여섯 가지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언어적 아이러니는 표현과 의미가 상충되는 진술로서 가장 일반화된 아이러니를 말한다. 이 아이러니에는 병치, 기지, 축소법 등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언어적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의미론적 아이러니라고도 불린다. 우리의 일상대화에서 풍자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② 낭만적 아이러니는 시인이 아름다운 환상을 창조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파괴되면 생겨나는 아이러니이다. ③ 우주적 아이러니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아이러니이다. ④ 순진성 아이러니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시점과 상반되는 현실을 대조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아이러니이다. ⑤ 냉소적 아이러니는 겉으로는 칭찬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러니이다. 이것은 일종의 야유라고 할 수 있다. ⑥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겉으로 무지를 가장하여 결국 상대방의 허점을 짚어 내는 아이러니이다.

폭로의 아이러니, 사건의 아이러니 등이 있다.

김유정 소설에는 궁핍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중인물들의 행동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상반된 결과(매음, 배신, 자해, 절도 등)를 야기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는 표면에 나타난 의미와 또 다른 이면에 나타난 대립적 의미의 세계를 통해서도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무지하거나, 바보스러운 인물들이어서 그들의 처지는 동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나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유정 소설에서 발견되는 상황의 아이러니는 주로 초점화자의 체험 상황에서 나타난다. 즉 상황의 진실을 모르는 초점화자와 그것을 아는 독자, 또는 인물과의 시각 상충에서 발생한다. 이제, 김유정 소설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의 아이러니 중에서 ‘극적 아이러니’와 ‘무의시적 자기폭로의 아이러니’, ‘사건의 아이러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극적 아이러니⁵⁸⁾

일반적으로, ‘극적 아이러니’는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이러니를 담고 있도록 설정된다. 이것은 흔히 주인공이 자기가 체험하는 사건이나 의도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판판인데도 모르고 행동⁵⁹⁾할 때 발생하는 아이러니이다. 그러므로 작중인물은 작중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운명과 정반대의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때 작중인물의 무지와 관객의 인지 사이에서 대립적 의미가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이 양가적 의미를 생성한다.

극적 아이러니의 대표적인 예는 오이디푸스 아이러니로 알려져 있으며, 이 아이러니의 기본요소는 ‘아는/모르는’, ‘우월한/열등한’ 등의 시각상의 대립이다. 이 때에 주인공은 ‘모르는/열등한’쪽에 속하고, 독자는 항상 ‘아는/우월한’쪽에 서게 됨으로써 대립적인 의미를 양가성으로 표출한다. 김유정 소설에서 아이러니의 강화 요소는 주로 희극적 요소가 담당하며 부수적인 미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⁶⁰⁾

58) 극적 아이러니(dramatic irony)를 ‘비극적 아이러니’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대표적 작품이 『오이디푸스 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이나 김유정 등이 이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59) 조관희(1999), 『아이러니와 소설』, 상명대학교, p.9.

60) 한만수(1986), “김유정 소설의 아이러니 분석”, 『동약어문논집』 제21집, p.238.

이러한 극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김유정의 작품에는 「소낙비」, 「金따는 콩밭」, 「금」, 「만무방」, 「안해」, 「동백꽃」, 「슬픈이야기」, 「땡별」, 「애기」, 등이 있다. 여기서는 5편의 작품에 국한시켜 「소낙비」, 「金따는 콩밭」, 「만무방」, 「동백꽃」, 「땡별」)을 중심으로 작중인물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가 빚어내는 반어적인 극적 양상을 통해 양가성을 추출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소낙비」에서는 궁핍한 생활고가 주인공인 <춘호>와 <춘호처>는 의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그는 노름 밀천 2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내를 <이주사>와의 매음에 끌어들인다.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매음으로 내보내는 남편의 행위에서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으며, <춘호>, <춘호처>, <이주사>의 시각이 독자의 시각과 충돌하면서 아이러니적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다.

① 언덕에서 쏠려나리는 사태물이 발등까지 개흙으로 덮으며 소리쳐호른다. 빗물에 폭젖은 몸둥아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벼웁게 몹서리를 친다. 그리고 당황한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안었다. 다시 시선을 돌려 어 그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안에는 확실히 리주사뿐일게다. 고대까지 걸었던 싸리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널은 빨래를 여태 안것어 드리는데 보면어 떤 맹세를두고라도 분명히 리주사외의 다른 사람은 하나도업슬것이다. 그는 마음노코 비를 마저가며 그집으로 달려들었다.

② 「그럼 요담 오겟세유 안녕히 계십시유」 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곳 온뎃는데 좀기달리지……」 「답에 또 오지유」 「아닐세 좀 기달리게 여보게 여보게 이 봐!」 춘호처가 간다는 바람에 리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유하였으나 암만해도 안된듯십다. 춘호처가 여기엘 찾아온것도큰기적이려니와 뇌성벽력에 구석진곳이겠다 이렇게 술깃한 기회는 두번다시 못볼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어 입에 물엇든 장 죽을쑥 뽑아 방안으로치트리고는 계집의 허리를 뒤로다짜고짜 끌어안어서 봉당우로 끌어 올렸다.

③ 다만 애키는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마저 죽을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집을 향하여 세차게 쏘다

지는 비쪽을 가본가본 내려달렸다.

④ 안해가 꿈지락어리는것이 보기에 껍으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안해손에서 열개 빗을 쓱뽀아들고는 시원스리 쪽쪽 내려빗긴다. 다 빗긴뒤 엽헤노힌 밥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실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를하게발라노았다. 그래노코 위서부터머리칼을 재워가며 뽀씨있게 쪽을 딱 찢러주드니 아츨에한사코 공을드려 삶아노았던 집석을 안해의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꼴을 내주었다. 「인제 가봐!」 하다가 「바루 곳와, 응?」 하고 남편은 그이원을 고이밧고자 손색없도록 실패업도록안해를 모양 내어 보냈다.⁶¹⁾

위의 인용문 ②에서 초점화자인 <이주사>는 <춘호처>가 여기에 찾아 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이며 고마운 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①에서 독자는 <춘호처>가 매음을 하기 위해 <이주사>를 유혹했음을 알고 있다. 여기서 <춘호처>의 행동을 아는 독자와 모르는 <이주사>사이의 시각 상충이 극적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③에서도 <춘호>가 자기 아내에게 매음을 사주하고 있었음을 아는 독자와 모르기 때문에 남편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춘호처>의 무지 사이에서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그녀의 매음 행위는 남편에게 매맞지 않고 살고 싶은 욕망과 남편과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은 수단이임을 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결말부분 ④는 <춘호>가 제 아내를 모양내어 <이주사>에게 내보냄으로써 아이러니의 절정을 이룬다. 남편인 춘호가 부부간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아내의 정조를 <이주사>에게 팔려는 행위는 명백한 비윤리적인 성 방조행위이다. 이러한 행동은 아내의 육체를 물질적인 교환가치로 매도하는 타락한 당대 현실에 대한 고발로 볼 수 있다.

주인물은 이처럼 도시에서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실현시킨다는 목표 아래, 매음으로 노름 밀천을 마련하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가짐으로써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순된 이중 구조를 내포한 양가적 행위를 한다. 이러한 <춘호>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는 극도의 궁핍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나,

61) 전신재 편(1987), 『원본 김유정 전집』, 한림대학출판부, 「소낙비」, ① p.28. ② p.29. ③ p.31. ④ p.35.

이 연구에서 필자는 이 책을 이용한 인용문은 단편소설의 제목과 쪽수만을 표시하며, 같은 작품에서 인용문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인용문에 번호를 붙여서 쪽수만을 표시하겠다.

동기나 과정 및 결과를 함께 중시해야 하는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주인공의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일제 식민체제가 자행한 수탈(역사적 배경)과 그로 인한 서민들의 극한적인 궁핍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는데도 숨은 목표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 독자들은 <춘호>의 허황된 꿈이 아내의 매음이라는 파행적 수단을 통해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극적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비판적인 각도에서 인물들의 매음 행위가 비윤리적임을 알고 있는 독자와 그러한 행위의 반 윤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 사이에서 윤리적 인식의 거리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결국 독자와 인물 사이의 대결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金따는 콩밭」에서는 착실한 소작인인 <영식>이 금점으로 돌아다니던 <수재>의 유혹에 넘어가 황재를 꿈꾸다가 콩밭만 망친다는 내용이다. 알라존적 성격의 소유자인 <수재>가 콩밭에 금줄이 있다고 부추겨서 <영식>을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 빈곤이 극한적 상황에 달해 있던 당대의 피폐한 농촌 현실에 만연되어 있던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소작인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① 땅속 저 밑은 늘 음침하다. 고달픈 간드랫볼. 맥없이 푸리끼하다. 밤과 달라서 낯엔 되우 흐릿하였다. 거츠로 황토장벽으로 앞뒤좌우가 꼭 막힌 좁직한 구멍이. 흡사허무덤속같이귀중중하다. 싸늘한 침묵, 쿠더브레한 흙내와 징그러운 냉기만이 그속에 자욱하다. 고갱이는 뻥뻥 흙을 이르집는다. 암광스러히 내려쬐며 퍽 퍽 퍽- 이렇게 메떠러진 소리뿐. 그러나 간간 우수수하고 벽이 헐린다. 영식이는 일손을 놓고 소맷자락을 끌어당기어 얼굴의땀을 훔는다. 이놈의줄이 언제나 잡힐는지 기기 찻다.

② 따는 일년 고생하고 깝 콩몇섬 얻어먹느니 보다는 금을 캐는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로에 잘만 캔다면 한해 줄것 공드린 그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올봄 보낼 제 비료값 품삯 빚해 빚진 칠원까닭에 나날이 줄리는 이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살고 말빠에는 차라리 가루지나 세루지나 사내자식이 한번 해볼것이다. 「넬부터 우리 파보세 돈만 있으면이야 그까진 콩은」 수재가 안달스리 재우쳐 보채일제 선뜻 응낙하였다. 「그래보세 빌어먹을거 안됨 고만이지」 그러나 꿈무니에서 죽을 마시고잇든 안해가 허구리를 쿡쿡 찢러게 망정이지 그렇지 앓엇드면 좀 주저할번도 하였다. 안해는

안해대로의 심이 빨랐다.

③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너머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같은 집까지 연상할제 수재는 시원스러히 「네 한포대에 오십원씩 나와유-」 하고 대답하고 오늘밤에는 꼭 정연코 꼭 다라나리라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간다. 뽕이 나서 백따구도 못추리기전에 훨훨 벗어나는게 상책이겠다.⁶²⁾

위의 인용문 ①은 이 작품의 도입부로서 파헤쳐진 콩밭의 공간은 마치 딱딱한 음침한 무덤 속 같이 쿵쿵한 흙내만 나는 곳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와 같은 일제 식민 체제 하의 암울한 현실을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농촌의 궁핍이 극에 달하여 농민들이 냉혹성과 절망감으로 좌절하는 모습을 비극적 아이러니로 암시하고 있다. 눈앞에 나타날 금줄을 연상하면서 콩밭을 파헤치는 <영식>의 행동에 무모함이 내재해 있다. ②에서 <영식>은 <수재>의 꼬임에 빠져 콩밭에서 금을 캐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단락이다.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인 ③에서는 <수재>가 콩밭에서 황토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금이 나올 가망이 없음을 인지한다. 그리고는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라는 거짓말 속에 도주계획을 숨겨 표현함으로써 아이러니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도 독자는 콩밭에서 금이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지한 <영식>과 <영식처>는 모르고 있음으로써 앓과 모름의 대립적 거리를 통해 극적 아이러니가 생성된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인물들의 앓과 모름의 대립적 인지상황을 당대의 시대현실 속에 존재했던 양가적 삶의 양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유정은 결국, 이 작품을 통하여 희망이 없는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현실 극복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악순환을 거듭하는 1930년대 농촌의 절망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무방」에서 <응오>는 도지세에 시달리는 소작농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농촌의 가혹한 현실에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자신이 소작하고 있는 논을 훔쳐간 도둑을 잡는 과정을 보여준다.

①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히 설흔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처

62) 「金따는 콩밭」, ① p.47. ② p.51. ③ pp.58~59.

주는 모범청년이였다, …(중략)… 한해동안 애를 조리며 훗자시 모양으로 알뜰이가 꾸든 그벼를 거더드림은 기쁨에 틀림업섯다. 곡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피로움을모른다. 그러나캄캄하도록 털고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제하고보니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 땀이 잇슬다름. 그것은슬프다 하니보다뜻업시 부끄러웠다. 가치털어주든 동무들이 뻥히 보고섯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느건 진정 열없기짜이업는 노릇이였다. 참다참다 응오눈에 눈물이 흘렀든것이다. 가뜩한데 업치고업치더라고 올에는 고나마 흥작이였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배틀렀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게 남지안흙은 물론이요빚도다 못 가릴모양, 에라 빌러먹을거, 너들 가리 태다 먹던마던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저두지 앓를수업다. 벼를 거덜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 물려들거니깐-

②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께를 내려조겼다.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소리에 구기가 뻥쩍 띄이어 그 고개를 들고팔부터 벗겨모았다. 그러나 너머나 어이가업엇음인지 시선을 치거드며 그 자리에 두두망철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였다. 살똥마즌 바라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드니 「성님가지 이러케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부라리며 몸을 핵돌리다. 그리고 늦기며 울음이 복바친다. 붓짐도 내버린채 「내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통스러히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업서진다. 형은 너머 꿈속 같태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한손으로 그 붓짐을 들어본다. 가뻥하니 깃 말가웃이나 될는지 이까진걸 요러케가지 해갈라는 그 심정은 실로 알수업다.⁶³⁾

위의 인용문 ①은 1930년대의 식민체제 하에서 진실한 농군이었던 <응오>가 지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빚마저 갚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자 만무방으로 전락하게 되는 동기와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결말부분인 ②에서 <응칠>이가 잠복 끝에 동생 논의 벼를 훔쳐간 도둑을 잡았으나, 그 도둑이 바로 동생인 <응오>였음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진실한 농군’이었던 <응오>가 자신이 소작하고 있는 논의 벼를 지주 몰래 훔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반윤리적인 만무방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반어적으로 숨겨서 고발한다. 또한 이러한 <응오>의 도둑질은 독자들에게 비극적인 연민의 정과 비애의

63) 「만무방」 ① pp.84~85. ② p.102.

웃음을 느끼게 하고, 당대 사회의 심각성 현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는 동기가 되어준다. 그러므로 이 소설 또한 진실한 농군이 동시에 만무방이 되어가는 양가적 성격 전도의 실상 속에서 당대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동백꽃」에서는 <점순>의 마음을 <나>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함으로써 <나>의 열등한 시각에서 ‘아는/모르는’의 대립에 의한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홀전 감자쪄간만 하드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뤄나.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뒤 로 살땀이 와서 「애!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않은 수작을 하는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든 터 이런만 오늘로 갑작소리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내기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던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느러놓다가 남이 드를가봐 손으로 입을 트러막고는 그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루 웃어울 것도 없는데 날새가 풀리드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⁶⁴⁾

위의 인용문에서 <점순>은 이미 성(性)을 알고 있는데, 남자인 <나>는 성을 몰라서 그녀가 보내는 사랑을 눈치 채지 못한다. <점순>은 <나>에게 봄감자를 용기를 내어 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점순>의 의도를 알고 있는 그녀 및 독자와 그녀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나> 사이에서 ‘아는/모르는’의 대립에 의한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이러한 두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대립적 인식의 거리를 동시적 상황으로 보여줌으로써 청소년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반동형성적 심리구조를 양가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땡별」에서는 아내의 병든 몸을 대학병원의 연구용으로 인신매매하여 병도 고치고 팔자도 고치려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 무지한 <덕순> 부부

64) 「동백꽃」, pp.199~200.

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작중인물들의 인식 또한 병 고침과 팔자 고침이라는 긍정적 가치와 아내의 몸을 연구용으로 인신매매하려는 부정적 가치가 충돌하면서 동시적 상황으로 제시된다.

두달동안이나 햇빛 못본 얼굴은 누렇게시들었고, 병약한 몸으로 지게우에 앉어 까딱이는 양이 금시라도 꺼질 듯 싶은 그 안해였다. 덕순이는 안해를 이윽히노려보다 「아 울긴 왜 우는거야?」 하고 눈을 부라렸으나 「병원에 가면 쯤대겠지요」 「쨌깁 아무거나 덮어놓고 쨌나? 연구한다니까!」 하고 되도록 안해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덕순이 생각에는 쨌든말든 그건 차치해놓고 우선 먹어야 산다. 고 「왜 기영이 할아버지의 멀슴 못들었어?」 「병원서 월급을 주구 고쳐준다게 정말인가요?」 「그럼 노인이 설마 거짓말을 헐라구, 그래 시방두 대합병원의 이등박산가 뭐가 열네살 된 조선 아히가 어른보다도 더 부대한걸 보구 하두 이상한 병이라구 붙잡아드려서 한달에 십원씩 월급을 주고 그 뿐인가 먹이구 입히구 이래가며 지금 연구하고 있대지 않아?」 「그럼 나두 허구헌날 늘 병원에만 있게 되겠구려?」 「인제 가봐야 알지 어떻게 될는지」



위의 인용문은 <덕순>은 <기영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병든 <아내>를 지게에 지게 대학병원으로 향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농촌에서 서울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덕순>은 <기영 할아버지>의 허풍스런 말에 현혹되어 대학병원에 연구용으로 병든 <아내>를 팔면 병원에서 월급을 받아 아내의 병도 고치고 팔자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대학병원이 병든 <덕순 아내>를 ‘연구’거리로 사서 병을 연구한다는 <기영 할아버지>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덕순>과 그의 <아내>는 모르고 있는데서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된다. 문제는 당대의 현실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와 모르고 있는 주인공 <덕순> 사이에 존재하는 상반된 인식상의 거리(모순)가 양가적 인식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당대의 현실 속에 이러한 모순된 인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작가의 처지에서, 도시 빈민층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모순된 양가적 현실인식 능력은 절대 빈곤과 무지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온 것임을 함축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다음은 자신의 옳음, 선함, 우월함을 입증하고 과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자신이 그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열등한/우월한'의 상충적 의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아이러니를 살펴보겠다.

(2)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아이러니⁶⁵⁾

무의식적 자기폭로 아이러니는 어떤 특정한 악덕이나 우행을 도덕군자인 체 하거나 현명한 체 하는 인물로 하여금, 자기모순적인 논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아이러니이다.⁶⁶⁾ 이 아이러니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옳음, 선함,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자신이 그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러한 아이러니의 유형에 드는 작품으로는 「안해」, 「심청」, 「가을」, 「봄·봄」, 「동백꽃」, 「애기」 등이 있다. 여기서는 2편의 작품(「봄·봄」, 「동백꽃」)만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봄·봄」에서 <나>는 성에 무지하고 아직 미성숙한 인물로서 <점순>의 사랑 표현을 눈치 채지 못한다. 이 작품에서 <점순>은 노련한 이중적 처세법을 사용하여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심리적 플레이를 기도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에게 주어진 과제는 점순과 장인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데 있다.

① 「밤낮 일만하다 말텐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소리냐,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 서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에 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동안 어떻게되는 심판인지 뭇을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올르고 싹이 트고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부다, 하고 며칠내에 붓적(속으로)자란듯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65)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문제란 Feud 나 Jung의 '의식과 무의식'의 심리학적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우주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 표피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문제현상이다. (김정자(1981), 「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와 문제」, 부산대학교, 「인문논총」.

66) Muecke, 전제서, p.59.

②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아! 아! 이놈아! 놈라, 놈,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췌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웨,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곳이 더 땡졌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도는것을 알고 좀겁도났다. 「할아버지! 놈라, 놈, 놈, 놈-」 그래도 안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 대체 이게 웬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질 혼내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귀를 뒤로 잡아댕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말었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져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할라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속알수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 보았다.



위 인용문 ①에서 <점순>은 자신의 키를 핑계로 교활하게 <나>에 대한 노동력만을 착취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은연중의 반발을 보인다. 예컨대, 무보수로 3년 7개월 동안 일 해온 <나>에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촉구하라고 <나>를 충동질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이것은 <점순>이가 <나>와의 결혼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를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②에서 <나>에게 성례를 시켜달라고 부추기던 <점순>은 <나>가 <장인>에게 적극적으로 덤벼들자, 오히려 아버지의 편을 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 장면에서 <점순>은 아버지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반동형성적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은연중에 아버지에게 결혼을 촉구하기 위한 태도로써 무의식을 가장한 자기폭로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나는 <점순>이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여기서 <점순>은 속마음과 겉 행동을 반동형성적으로 보임으로써 양가적 의미를 생산한다. 겉으로는 아버지 편을 드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편을 드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 욕망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동백꽃」에서도 <점순>은 <나>에게 사랑표현을 하였으나, 받아지질 않자, 양갓춤으로 사랑표현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작품이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느집인 이거 없지」 하고 생색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랴지 않고 일하든 손으로 그 감자를 도루 어깨넘어로 쑥 밀어버렸다.

② 점순이가 즈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앞에다 우리 싸암닭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리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 마는 아주 알도 못나라고 그 불기작개를 주먹으로 콕 콕 쥐여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십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 보고야 그제서 점순이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투를 후려치며 「이놈의 게집애! 남의닭 알 못나라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뿜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답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때를 견양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네보란드키 내앞에 쥐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③ 「그럼 너 이담부텀 안그럴터냐?」 하고 무를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문물을 우선 씻고 뭘 안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보라 내 자꾸 못살게 굴터니?」 「그래그래 인젠 안그럴테야!」 「닭 죽은건 염녀마라 내 안이를테니」 그리고 뿔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둥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여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따이 꺼지는 듯이 원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말말아?」 「그래」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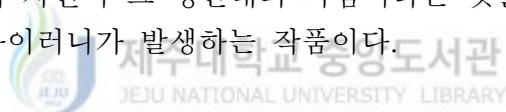
위 인용문 ①에서 <점순>은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사랑표현을 하였으

67) 「동백꽃」, ① p.200, ② p.202. ③ p.206.

나,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감자를 거절한다. ②에서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분노로 닭싸움을 시킨다. 여러 차례의 닭싸움은 <나>에 대한 <점순>의 양갓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나의 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③에서 <점순>은 <나>가 그녀의 닭을 때려죽인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협상을 제안하자 나는 영겁결에 이에 응하게 된다. 그 결과, <나>는 점순에게 떠밀려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면서 <점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순간 <나>는 <점순>이 그동안 보여준 낯선 행동들의 정체를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점순은 동백꽃 숲의 공격적인 포옹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형태로 내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순의 이러한 반동형성적 행동은 명백한 양가적 태도로 인식된다. 사랑하는 속마음을 거친 행동으로 은폐시켜 표출하는 상반된 양가적 행동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밖에 「심청」과 「가을」 등도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먼저, 「심청」에서는 자신의 옳음, 선함, 우월함을 입증하고 과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자신이 그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작품이다.



거기다 네 살쭈름 된 어린 거지는 시르죽은 고양이처럼, 큰놈의 무릎위로 기어오르며, 울 기운 좇아 없는지 입만 병긋병긋, 그리고 낮을 췌프리며 튀정을 부린다. 꼴을 봐한즉 아마 시골서 올라온지도 불과 며칠 못되는 모양이다. 이걸 보고 그는 잔뜩 상이 흐렸다. 이별레들을 치워주지 않으면 그는 한 거름도 더 나갈수가 없었다...(중략)...고보때에 가치뛰고 가치웃고 가치즐기든 그리운 동무, 예수를 믿지않는 자기를 향하여 크리스찬이 되도록 일상 권유하든 선냥한 동무이었다...(중략)...(오냐, 저게오면 어떻게 나의 갈길을 치워주겠지)...(중략)...「아 이게누구나? 너 요새 뭐하니?」 그도 쾌활한 낮에 미소까지 보이며 「참, 오래간만이로군!」 하다가 「나야 늘 놀지, 그런데 요새두 예배당에 잘다니나?」 「음, 틈틈이 가지, 내 사무란 그저 늘 바쁘니까...」 「대관절 고마워이, 보기추한 거지를 쫓아주어서 나는 웬일이지 종로깍쟁이라면 이가 북북 갈리는걸!」 「천만에, 그야 내직책으로 하는걸 고마울거야있나」 하며 동무는 건아하야 흥있게 웃는다. 이 웃음을보자 돌연히 그는 점잖게 몸을가지며 「오, 주여! 당신의 사도'베드로'를 나리사 거지를 치

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나다」 하고 나직이 기도를 하고 난뒤에 감사와 우정이 넘치는 탐탁한 작별을 동무에게 남겨놓았다. 자기가 '베드로'의 영예에서 치사를 받은 것이 동무는 무척 신이나서 으쓱이는 어깨로 바람을 치올리며 그와 반대쪽으로 거러간다.”⁶⁸⁾

위 인용문은 실업자인 <그>에게 <거지>가 구걸을 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는 <거지>를 마치 벌레라고 하찮게 여기며 <거지>보다는 “강아지의 문벌이 조금 더 높다”고 여기는 인물이다. 마침 거지를 쫓아 준 <순경>은 고보 때 동창생이었다. <거지>를 쫓아 자신을 도와준 동무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는 기도를 올린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실업자인 <그>가 <거지>보다 우월함을 입증하고 과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를 도와준 경찰이 된 <동무>를 통해서 자신은 우월한 사람이 아닌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아이러니의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실업자인 그는 약자에게는 냉정하게 대하고 강자에게는 아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데, 이 또한 양가적 처세술이나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을」에서는 어떤 특정한 악덕이나 우행을 도덕군자인체 하거나 현명한 체 하는 인물로 하여금, 자기모순적인 논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의식적 자기폭로의 아이러니가 발견된다.

① 매매계약서

일금 오십원야라

우금은 내 안해의 대금으로서 정히 영수합니다.

갑술년 시월 이십일

조 복 만

② 내가 구문을 받아 먹었다든지 또는 복만을 내가 소개했다든지 하면 혹 물으겠다. 기약서 써주고 술 몇 잔 얻어먹은것 밖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놈의 말을 드러보면 영득 어머니가 간지 나홀되든 날 즉 그적게 밤에 자다가 어디로 없어졌

68) 「심청」, pp.164~165.

다. 밝는 날에는 들어올가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영 들어오질 않는다. 오늘은 곡뚜새벽부터 사방으로 찾아다니다 비로소 우리들이 짜고 사기를 해먹은것을 깨닫고 지금 찾아왔다는것이다... (중략)...남의 안해를 판 돈에서 대서료를 받는것이 너머 무례한 일인것쯤은 나도 잘 안다. 술을 먹었으니까 그만해도 좋다하여도 「두구 술사먹게 난 이거 말구두 또 있으니까」 하고 굶이 주머니에까지 넣어주므로 궁하기도 하고 그대로 받아두었다.⁶⁹⁾

위의 인용문 ①,②는 <나>가 <복만>의 <아내>를 팔 때“매매계약서”를 써 준 장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는 계약서를 써주고“술 몇 잔 얻어먹은 것밖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항변한다.

그러나 <그>는 대서료를“굶이 주머니에까지 넣어주므로 궁하기도 하고 그대로 받아두었다.”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무의식중에 진술함으로써, 결백을 주장하려던 것이 결국 자신의 위선을 입증하는 자기폭로의 아이러니를 낳게 된다.

다음은 작중인물이 자신이 처한 각박한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작중인물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아이러니를 살펴보겠다.

(3) 사건의 아이러니

사건의 아이러니는 희생자가 미래에 대해 의지하는 마음을 웬만큼 명백히 표현하지만 사건의 어떤 예기치 못한 변전이 그의 계획, 기대, 희망 등을 좌절시킬 때 발생된다. 작품의 이야기 구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작중인물의 자신에게 처한 각박한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작중인물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더욱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김유정의 작품으로는 「소낙비」, 「金따는 콩밭」, 「금」, 「안해」, 「땡별」 등이 있다. 여기서는 3편의 작품(「소낙비」, 「金따는 콩밭」, 「땡별」)을 텍스트로 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먼저 「소낙비」에서는 <춘호>가 가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큰 가난으로 빠져들게 되는 사건의 아이러니를 발생하고 있는 작품이다.

69) 「가을」, ① p.175, ② pp.177~178.

해를이어 흉작에농작물은 말뚝되고 딸아빳쟁이들의 위협과악마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하릴업시 집, 세간사리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도주를 하였든 것이다. 살기조흔 곳을 찾는다고 나아린 안해의 손목을 이끌고 이산저산을 넘어 표랑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 들은 것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살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골엘 가 호미를 잡아보아도정은 조그만치도 안뵈혔고 거기에는 으죽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벌려 그를 맞을 뿐이었다. 터무니 업다하여 농토를 안준다. 일구녕이 업스매품을못판다. 밥이 업다. 결국엔 그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뻗었다. 요사이 며칠동안을두고 요넘어 뒷 산속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버러지는 기미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목볼려고 끼룩어렸스나 좀체로 미천을만들수가 업섯다. 이원! 수나조하야 이 이원이 조화만 잘한다면금시 발복이 못된다 고 누가 단언할수잇스랴! 삼사십원 따서 동리의빳이나 대충 가리고웃한벌지여 입고는 진저리나는 이산골을떠날라는 것이 그의 배포이었다.⁷⁰⁾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춘호>는 흉작으로 빚을 내고 고향을 떠나 야반도주하는 이농민이다. “결국엔 그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뻗었다.”에서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노름을 생각해낸다. 여기서 노름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꿈을 파행으로 이끄는 동기가 되는 사건이다. 일제의 수탈과 지주의 횡포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노름)은 결국, 아내를 매춘으로 내모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건의 아이러니로서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결국, 불행의 동기가 되어준 사건인 노름밀천 구하기 전략은 <춘호>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커녕 더 큰 가난으로 몰고 감을 예시해줌으로써 양가성을 띠다고 볼 수 있다.

「금따는 콩밭」은 1930년대의 황금광 열기가 극에 달하던 시대적 풍속을 배경에 깔고 있는 작품이다. 소작농인 <영식>이가 금점으로 떠돌아다니던 <수재>의 꼬임에 빠져 콩밭에서 금줄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수확기를 앞둔 콩밭을 파헤치는 바람에 콩밭도 망치고 일년 농사마저 망쳐버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70) 「소낙비」, pp.31~32.

이놈 풍씨는 바람에 애끝은 콩밭하나만 결단을냈다. 뿐만아니라 모두가 낭패다. 세벌논도 못맷다. 논둑의풀은 성큼 자란채 어즈러히 늘려져있다. 이기미를 알고 지주는 대로하였다. 내년부터는 농사질 생각 말라고 밭을굴렀다. 땅은 암만을 파도 지수가 없다. 이만해도 다섯길은 훨씬 넘었으리라. 좀 더 지퍼야 옳을지 혹은 북으로 밀어야옳을지 우두머니망설결인다. 금점일에는 푸뚝이다. 입대껏 수재의지휘를받아 일을해야왔고 앞으로도 역 그러해야 금을 딸것이다. 그러나 그런 칙칙 죽은 안한다.⁷¹⁾

위 인용문은 성실한 소작농이었던 <영식>이 <수재>의 꼬임에 빠져 금줄을 찾기 위해 콩밭을 망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영식>이 극한적인 가난의 수령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일확천금의 꿈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는 하지만, 콩밭에서 금이 나올 수 있다는 요행만을 믿고 콩밭을 망치는 행위는 그의 삶을 이전보다 더 악화시키는 결정적 사건이 된다.

영식에게 이 사건은 그의 두 가지 모순된 욕망과 관련된다. 하나는 비록 엉뚱하지만, 콩밭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일년 농사마저 망침으로써 최악의 극빈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는 주인공의 행복한 꿈이 콩밭 사건을 계기로 과멸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건의 아이러니로서 양가적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땡별」에서는 가난을 탈피하려는 <덕순>의 무지가 문제된다. 작중인물들의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들을 더 심한 가난 속으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사건의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덕순이는 이렇게 얼떨떨한 낮으로 다시 한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수 없었다. 간호부의 말이 무슨 소린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속대중으로 저쯤은 알아채였든것이니 안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 말이 두렵기도하려니와 겨우 아이를 뺏다는 것쯤, 연구꺼리는 못되는 병인양 싶어 우선 낙심하고 마는것이다. 허나 이왕 버린노릇이매 「그럼 먹을것이 없는데요-」 「그런 여기서 입원시키고먹일것이니까 염녀마서요-」 「그런데요 저-」 하고 덕순이는 열적은 낮을 무얼로 가릴지 몰라주뵈주뵈 「월급같은건 안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수두 있다지요」

71) 「금따는 콩밭」 p.48.

「제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말이요?」 하고 맨망스리도 툭 쏘는바람에 덕순이는 얼굴이 고만 벌개지고 말았다. 팔짜를 고치려든 그 계획이 와전히어그러졌음을 알자, 그의 주린창자는 다시금 척 꺾이며 두꺼운 손으로 이마의 진땀이나 훑어보는 밖에 별도리가 없는것이다.⁷²⁾

위 인용문에서 <아내>의 병과 팔자를 함께 고치고자 하는 덕순의 허황된 기대(목적)는 <간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좌절을 겪게 됨으로써 사건의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이 작품은 외적으로는 무식하고 순박한 소시민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무지와 가난으로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당대의 비극적 현실을 고발한다.

이처럼 주인공의 무지에서 파생되는 사건의 아이러니는 역시, 아내의 병과 팔자를 동시에 고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아내를 병원의 연구용으로 인신매매하려는 무지가 만들어 내는 대립적인 양가적 욕망 속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김유정은 이 소설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기에 무지와 극심한 궁핍이라는 이중고에 포위되어 생존마저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도시 이농민의 비극적 상황을 아이러니의 구조로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소설의 '제목'과 소설 내용과의 상충이나 작중인물들의 이름과 소설 내용과의 충돌을 통하여 그 의미를 창조하고 있는 언어적 아이러니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이다.

2) 언어의 아이러니

언어의 아이러니는 '말의 아이러니' 또는 '표현의 아이러니'라고도 부르는 '의미론적 아이러니'이다. 언어적 아이러니는 '표현된 것'과 '의미된 것'의 상충에서 발생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참뜻과 대조되는 발언을 지시한다. 귀여운 아이를 보고 '아주 알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귀엽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어적인 진술을 통하여 어떤 태도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해진 것과 의도된 것 사이에 대립이나 대조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또한 언어적 아이러니는 문맥에 의한 아이러니로서 그 해석의 단서가 암시적이어서 잘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적 관점의 대조는 관찰자의 논리적, 심리적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72) 「땡땡」, pp.307~308.

이와 같은 언어의 아이러니는 흔히, '제목'과 소설 내용과의 상충이나 작중인물들의 이름과 소설 내용과의 충돌을 통하여 그 의미를 창조하기도 한다. 웨인 C. 부우드의 말대로, 소설에 있어서 제목의 기능은 "주제를 공표하고 독자를 그 주제에 적합한 정신상태로 유도⁷³⁾"하는데 있다.

'제목'과 소설 내용의 상충에서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작품으로는 「金따는 콩밭」, 「貞操」 등이 있다. 먼저 「金따는 콩밭」에서 표현된 제목과 의미된 소설내용과의 상충에서 생성되는 언어적 아이러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콩밭 낫짜를 들여다보니 무던히 애통터진다. 멀정한 밭에가 구멍이 사면 풍 풍 뚫렸다. 예제없이 버력은 무데기 무데기 쌓였다. 마치 사태만난 공동묘지와도 같이 귀살적고되우을씨냥스럽다. 그다지 잘 되엇든 콩포기는 거반 버력덤이에 다아 깔려버리고 군데군데 어찌다 남은 놈들만이 고개를 니플거린다. 그꼴을 보는것은 자식 죽는 결보는게낫지 차마 못할 경상이었다.⁷⁴⁾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 작품은 제목 「金따는 콩밭」과 내용과의 대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미상의 상충에 의해서 아이러니를 유발하고 있다. '金따는 콩밭'으로 표현된 제목과 콩밭에서 금을 캐기는커녕 수확을 눈앞에 둔 콩밭 농사까지 망쳐버리는 소설내용의 의미상의 충돌 속에서 생성되는 논리적 모순이 언어적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어적인 대립적 진술을 통하여 표현된 것과 의미된 것 사이의 대립이나 대조의 구조가 아이러니를 구축하는데, 그러한 아이러니를 생성시키는 대립적인 의미구조 속에 양가성이 담기게 된다.

한편,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이름' 또한 내용과의 상충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 소설의 작중인물의 이름 '영식'이란 이름이 표현된 의미로는 '가득 차서 번성한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에서 주인공은 콩밭을 망치게 됨으로써 결국 파멸의 국면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영식'

73)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1985), 「소설의 수사학」, 새문사, pp.130~131.

이와 같은 논문은 한만수(1986), "김유정 소설의 아이러니 분석", 「동악어문논집」 제21집, 등이 있다.

74) 「金따는 콩밭」, p.49.

이라는 이름과 소설의 내용은 서로 의미상의 상충을 통해 언어적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수재'라는 이름 또한 표현된 의미로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데,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주인공을 몰락케 하는 조력자나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내용과 충돌한다.

작품 「貞操」⁷⁵⁾는 <행랑어멈>이 서방님을 유혹하여 정조를 팔고, 그 대가로 고뿌술집을 차릴 돈을 마련하여 남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도 제목과 소설 내용 사이에 의미상의 충돌이 발생한다.

「전 서방님허구 살구싶어요. 웬 일인지 전 서방님만 보면 팬스리 좋아요」 「그래 그래 살아보자꾸나!」 「전 뭐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집 한 채만 사 주시면 얼마든지 살림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이쁜듯이 팔로 그목을 얹어드리며 「그렇지 않아요? 서방님! 제가 뭐 기생첩인가요 섹시첩인가요 더바라게?」 더욱이 앙큼스러운것은 나중에 발뺌하는 그 태도이었다.…(중략)…이년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애뺏다는 자세로 며칠씩 그대로 자빠져서내다 주는 밥이나 먹고 누웠을 그런배짱이 못될것이다. 아씨가 화가 치밀어서 어멈을 불러드리어 「자네는 어떻게된 사람이걸래 그리도 도한가 앞으라고 누웠고 애뺏다고 누웠고 졸립다고 누웠고 이러니 대체일은 누가 할 겐가?」 이렇게 눈이 빠지라고 툭툭이 역정을 내었을제 「애 뺏 사람이 어떻게 일을해요? 아이 별일두! 아씨는 훗몸으로도 일안하시지 않아요?」 하고 저도맞우대고 눈을뚝바루 뜯걸 보드라도 제속에서 우러나온 소리는 아닐듯 싶다.…(중략)… 「고뿌술집할테니까 한 이백원이면 되겠지요 더는해 뭘하게요?」 하고 네보란듯토심스리 내뺏고는 구루마의 뒤를 짊어 골목밖으로 나아간다. 아씨는 가만히 눈치를 봐하니저년이 정녕코 돈이백원쯤은 수중에 갖고고 히짜를 빼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어젯저녁 자기가 뒤란에서 한참 바쁘게 약을 끄리고 있을제 년이 안방을 친다고 들어가서 오래있었는데 아마 그때 서방님과 수작이 되고 돈두 그때 주고 받은 것이 확적하였다.⁷⁶⁾

75) 「김유정 소설에서 「貞操」는 소설 제목이 소설내용과의 모순된 상충이 이루어지는 작품이다. 이 연구에서 언어의 아이러니의 제목이 소설내용과의 모순된 상충이 이루어지는 작품이 2편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貞操」를 추가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76) 「貞操」, pp.266~271.

이 작품의 제목 ‘貞操’은 여자의 곧고 깨끗한 절개, 성적 관계의 순결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행랑어멈>이 주인집 <서방님>을 유혹하여 육체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조를 파는 행위를 한다. 따라서 ‘정조의 지킴’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제목과 ‘정조를 팔아 목적을 쟁기는’ 소설 내용과의 의미상의 상충에 의해 언어적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반어적 진술은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걸로 표현된 것과 속으로 의미된 것 사이의 이중적 태도와 욕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분석과 해석의 차원에서 양가성은 소설작품의 다양한 유기적 의미작용을 보다 깊고 넓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 해석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아이러니를 통해서 살펴본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파행적 수단으로 절도, 도박, 매음 등의 방법을 선택한다. 작중인물들이 선택하는 이러한 반윤리적인 생존전략은 그것들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존재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의 전략이라는 사실로부터 비극성을 읽어낼 수 있다. 1930년대 암울한 일제 식민체제 하의 시대적 배경 속에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순박하고 무지한 인물들의 비극적인 현실에서 작중인물들이 벌이는 행동이나 사건은 당대의 현실조건에 대한 문학적 반항이자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고발은 반어적인 대립구조를 통하여 한층 예술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됨은 양가적 의미를 주체의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기여한다.

다음은 양가성을 생성시키는 역설의 기법과 구조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이다. 소설에 나타나는 아이러니와 역설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통해 모순 논리를 창조한다.

2. 역설

일반적으로, 역설(逆說)⁷⁷⁾은 아이러니와는 달리 외적으로 표현된 문장이나 담론 속에 모순 논리를 함축하여 제시되는 특성을 보인다. 표면적인 진술과 내재적인 의미 사이에 모순을 함축하는 점은 아이러니와 유사성을 보여주지

77) 어원은 그리스어 ‘para(넘어선)+ doxa(의견)’의 합성어이다.

만, 표현된 문장 속에 모순을 함유하는 것은 이질적 특성이다. 또한 그것은 모순되는 두 사실의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거나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양가성의 표현 기법으로도 활용된다.

김유정 소설에는 1930년대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극한적 궁핍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독특한 행위자들이 등장한다. 예컨대, 아내를 매음하게 하는 남편, 매음으로 남편을 먹여 살리는 아내, 자식과 먹을 것을 다투는 아버지, 자식을 버리려는 부모 등 비극적 상황이 설정된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이고 파행적 관계는 역설적인 웃음을 유발시켜 연민을 불러일으키도록 장치되고 고안된다. 역설의 기법이 나타나는 작품에는 「산스골나그네」, 「소낙비」, 「金따는 콩밭」, 「떡」, 「만무방」, 「숯」, 「안해」, 「심청」, 「가을」, 「동백꽃」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산스골나그네」, 「소낙비」, 「金따는 콩밭」, 「만무방」, 「동백꽃」 등 5편에 국한시켜서 역설과 양가성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1) 「산스골나그네」

이 작품에서는 아내(나그네)가 극한적 빈곤의 상황 속에서 남편과의 부부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정조를 무기로 들병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1930년대라고 하는 식민통치가 몰고 온 절대빈곤의 특수 상황과 작중인물들이 그러한 모순된 실존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초윤리적 행동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아내인 <나그네>가 보여주는 들병이의 역할이 그 한 예가 된다.

벽이 확나가고 네기둥썩인 그속에힘을일흔 물방아는 을씨냥긋게모로누었다. 거지도 고 엽에훗이불우에 거적을덜뜨고 누었다. 거푸진 신음이다, 으! 으! 으흥! 석가래 사이로 달사빛은 쌀쌀히흘러든다. 각금 마른넙흘썩리며- 「여보 자우? 일어나게유 얼 핀」 계집의음성이나자 그는꾸물거리며 일어안는다. 그리고너털대는 훗적삼을깃을 염여잡고는 덜덜썩는다. 「인제 고만 씨날테이야? 쿨룩…」 말라싸진얼골로 계집을 바라보입고서 집행이를쓸며 물방아사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부축하야 계집은뒤에 싸른다. 술집며누리다. 「옷이 너머커- 줌저것엇스면…」 「잔말말고 어여갑시다 펼적…」 계집은불이나게그를재촉한다.⁷⁸⁾

78) 「산스골나그네」, p.13.

위 인용문에서 들병이가 된 <나그네>는 <덕돌>과 위장결혼을 위하여 첫날 밤을 치르고는 병든 <남편>에게 입힐 겨울옷을 훔쳐 달아난다. 매음이 곧 열녀라는 역설은 1930년대가 만들어 낸 한국적 현실 속의 비극이다. 여기서 <나그네>의 반윤리적 행위는 절대빈곤의 극한 상황 속에서 남편에 대한 윤리를 잃지 않기 위한 역설적인 행동⁷⁹⁾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나그네>는 병든 <남편>보다는 <덕돌>과의 삶이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나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비윤리적 행동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작중인물들의 이러한 파행적 행동은 양가적 의미의 해석을 통해서 보다 확장적인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비극적 상황이 단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역설적인 웃음을 유발시켜 연민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이러한 양가적 의미구조 속에서 보다 견고한 포괄적인 논리로 확인될 수 있다.

2) 「소낙비」

이 작품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사주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생존을 절대가치로 인식해온 김유정의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이 갖는 의미는 당대의 식민사회가 여성의 육체를 희생하여 궁핍성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최후의 상황이었음을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춘호처가 그집을 나선것은 들어간지 약 한시간만이었다. 비는 여전히 짙짙 나린다. 그는 진땀을 잇는대로 흠뻑 쏟고나왔다. 그러나 이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소치며 생긋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중에도 똥쓸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법이니 이까짓거야 골백번 당한대도 남편에게 매나안맛고 이조케 살수만있다면 그는 사양치안홀것이다. 리주사를 하눌가티 은인가티 여겼다. 남편에게 부쳐먹을 농토를 줄테니 자기의 첩이되라는 그말도 죄송하였스나 더욱이 돈이원을 줄께니

79) 이혜영(1986), “김유정의 성을 통해서 본 사회의식”, 『우석어문』 제3집, p.135.

내 일이맘때 쇠돌네집으로 년짓이 만나지는 그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벽찬 짐이
나 풀은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⁸⁰⁾

<춘호처>가 <이주사>에 몸을 팔려는 것은 남편의 노름 밀천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즉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정조를 파는 역설적인 상황⁸¹⁾이 벌어진다. 이처럼, 일생 동안 소중
히 다루어야 할 아내의 정조가 비윤리적인 매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궁극
적으로 위기를 만난 가정을 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역설
적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매음은 가정의 파괴 행위가 아니라, 절대적 궁핍에 처해
있는 가정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초윤리적인 역설성을 함유한다. 이러한 점에서 <춘호처>는 외적으로는 매음
으로 몸을 팔지만, 그 이면에는 가부장제 하에서 남편을 위해 정조를 헌신하
는 순종적인 인물로서 일종의 광대형 인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광대처
럼, 비극적 현실 속에서 가면⁸²⁾을 쓰면 수치심과 비도덕적인 것이 가면 속에
감추어져서 변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춘호처>의 매음은 1930년대 한국적 특수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
키기 위한 희생적인 초윤리적 행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논리로 인
해, 비극적 상황은 단순한 비극으로 인식되는데 머물지 않고, 도리어 비장한
웃음을 유발시키는 역설적 구조가 구축되게 된다. 이러한 초윤리적 역설의 구
조 속에서 매음의 양가성적 의미가 생성된다. 일제 식민체제 하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의 정조까지도 스스로없이 파
는 파행적 행위를 통해서 독자들은 윤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연민의 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金따는 콩밭」

80) 「소낙비」, p.31.

81) 김미현(1990), 「김유정 소설의 카니발적 구조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68.

82) 바흐친이 카니발적 사건이라고 해석했던 것(양가성, 가면, 인간의 이중화)은 동일하지 않은 것을 결
합시키고 대립을 가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매개가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김미현, 앞
의 논문, p.68.)

이 작품은 콩밭에서는 금을 캐 수 있으리라는 주인공의 상상이 실제로는 현실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밭에서 금을 판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어법인 역설적 표현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역설은 제목에서부터 발견되지만, 그 역설적 의미 속에는 당대인들의 허황한 꿈과 그런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 현실에 대한 고발과 증언이 내재해 있다.

하기는 금만 잘 터져나오면 이가진 콩밭쫄이야. 이밭을 풀어 논도 만들수 있을것이다. 눈을 감아버리고 삽의흙을 아무렇게나 콩뉘우로 획 획내어던진다. 「구구루 땅이나 파먹지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동리 노인은뻘췌 찾아와서 귀거친 소리를 하고 하였다.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대구 뜯는길이였다.금인가 난장을 맞을건가 그것 때문에 농군이 버렸다. 이게 필연코 세상이 망할려는 증조이릴. 그소중한 밭에다 구멍을 뜯코 이지랄이니 그놈이 노전할겐가. 노인은 제물화에 지팽이를 들어 샷대질을 아니할수없었다. 「벼락 맞으니 벼락맞어-」 83)

위의 인용문은 <수재>의 꼬임에 빠져 콩밭에서 금을 캐 수 있으리라는 <영식>의 상상과 함께 콩밭을 파헤치는 무모한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무모함은 <동리노인>의 말속에서 콩밭에서 금을 캐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즉, 콩밭에서 금을 캔다는 자체가 모순에 차 있고 풍자적이다.

이처럼 허황한 그들의 일확천금의 꿈과 부정적인 현실 상황은 역설적인 양가성을 통해 당대의 총체성에 접근하는 특성을 보인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실존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초윤리적인(반윤리적 상황까지 넘어서는) 파행적 행동을 양극으로 하는 양가적 행동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다.

4) 「만무방」

이 작품은 1930년대라고 하는 최악의 생존조건 하에서 정상인까지도 만무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대의 시대상황에 대한 고발의 목소리가 강하게 실려 있는 작품이다. 이미 만무방으로 살다가 귀향한 형 <응칠>과 진실하게 고향을 지켜온 동생 <응오>가 최악의 궁핍한 현실과 싸우다 영겁결에 만무방

83) 「금따는 콩밭」, pp.52~53.

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착실한 농촌 사람들까지도 가혹한 빈곤의 상황 속에서 만무방의 삶을 우러러보고 칭송하는 시대현실을 증언한다.

① 응칠이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어떤 경의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 느끼고 어께가 으쓱어린다. 백관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안저서 몇번말만 좀하면 대번 구부러진다. 그러케 장한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적질 이지만, 들어가 욱보던 이야기를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라케뜨고 「아이구, 그걸 어쩌케 당하섯수!」 하고 적이 놀라면서도 「그래 그돈은 어쩌켓수?」 「또 그렐 생각이 납떡까유?」 「참 우리가 튼 온군네 대면 호강사리유!」 하고들 한편 씩 부러운 모양이었다. 저들도 그와가티 진탕먹고 살고는 십흐나 주변업서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위안이되는 것이다.

②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계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소리에 귀가 뻗쩍 띄이어 그 고개를 들고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업엇음인지 시선을 치거드며 그 자리에 우두망철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마즌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드니 「성님까지 이러케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홑돌린다. 그리고 늦기며 울음이 북바친다.붓집도 내버린채 「내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통스러히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업서진다. 형은 너머 꿈속 가태서 멍허니 섯을뿐이다.⁸⁴⁾

인용문 ①은 '정상적인 도덕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도둑을 선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⁸⁵⁾ 일제 식민통치 상황에서 <응칠>은 절도를 저지른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레 여기는 비정상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응칠>의 가치관 파괴 현상은 그 뿐만 아니라 30년대의 다른 농민들에게도 보편화 되어 있고 있으며, 당대의 비참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역설적 메시지를 환기하고 있다.⁸⁶⁾

②에서는 <응오>가 자신이 소작한 벼를 훔치는 것을 <응칠>에게 들키

84) 「만무방」, ① p.95.② p.102.

85) 신동욱, 전계서, p.144.

자,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라며 형에게 대항하는 말을 통해 지주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역설적 항변을 대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생존을 위해 자신이 소작한 벼를 자신이 절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만무방적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생존을 위해서는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 현실의 파행적 이중구조를 양가성으로 제시한다. <응오>의 파행적 행위는 윤리성 여부를 떠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피할 수 없는 선택적 행동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작가는 <응칠>과 <응오>의 만무방적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독자들에게 양가적 의미로 포괄하여 제시함으로써 시대적 정황을 보다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역설의 기법은 한결같이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시대 상황과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가는 아내의 매음이나 인신매매 등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1930년대라는 극한의 시대를 특유의 역설과 반어 등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김유정 소설에 있어서 도덕이나 윤리의식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생존의 절박함으로 인식된다. 그만큼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 최악의 상태였음을 고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초윤리적 시대상황을 가장 치열하게 증언하는 도구로서 매음과 인신매매, 혹은 만무방적 행동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며, 또 그런 시대상황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양가성을 의미의 형상화 방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김유정 소설에서는 아내를 매음하게 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매음으로 남편을 먹여 살리는 아내, 자식과 먹을 것을 다투는 아버지의 특수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반윤리적이고 파행적인 인간관계의 설정은 단지 역설적인 웃음을 유발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대의 시대상황이 인간관계의 마지막 보루에 직면해 있었음을 증언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남녀가 성격이 뒤바뀌는 이른바, ‘성의 전도 현상’이나 ‘공간 기능의 전도현상’을 모순과 대립의 논리로 보여주는 패러디의 기법을 통하여 양가성을 추출해 보기로 하겠다.

3. 패러디

86) 박남철(1989), "김유정소설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pp.38~39.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형식이기도 한 패러디⁸⁷⁾는 양가성의 형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게는 '낮설게 하기'의 기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그들은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를 구분하고, 형식을 낮설게 만들어 문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문학의 본질로 이해했다. 옛 형식이 자동화되어 독자의 감각에 감동의 충격을 주지 못할 때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곧 문학의 임무라는 것이다.

또한 서정소설의 모더니즘적 특성으로서 제기된 낮설게 하기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동화된 인식을 깨뜨리면서 부정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⁸⁸⁾하는 기법으로 통용된다. 이처럼 낮설게 하기는 상투화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과 인식의 틀을 깨고 사물의 모습을 낮설게 하여 대상이나 사물의 본래 모습을 찾아 재인식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절대성을 파괴시키는 상대성의 창조인 패러디는 또한 카니발적 제식의 핵심 요소와 연결된다. 카니발적 삶이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삶이며, '뒤집혀진 삶', '거꾸로 된 세상'에서의 삶을 상징한다. 카니발이 벌어질 때면 일상적 생활의 질서와 체계를 규정짓는 구속, 금기, 법칙들이 제거된다. 이러한 양상이 인간의 성(性)과 관련되면 '남성적인 여성'과 '여성적인 남성'으로 나타나 일탈적인 면모를 보이게 된다.

김유정의 소설에는 '성의 전도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의 변모⁸⁹⁾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의 성격상의 전도'와 '남녀의 공간상의 전도'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성의 전도현상은 패러디의 기법을 통해 제시되는 낮설게 하기의 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와 상반된 대립구조를 동시에 전제함으로써 양가적 의미로 통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패러디는 문학, 혹은 인식상의 낡고 굳은 관습의 틀을 현실과의 대비를 통해 깨기 위한 문학적 기법"⁹⁰⁾이라는 점에서 카니발이나 낮설게 하기 수

87) 권택영(1992), "패러디, 패스티쉬 그리고 독창성", 『현대시사상』 겨울호, 고려원, p.181.

88) 김해옥(1999), 『한국 현대 서정소설론』, 새미, p.15.

89) 한국적 전통적 여인상이란 가부장 중심의 가정 내에서 권고하는 항목인 유순과 정절, 인고의 미덕을 가진 여성상이다. 자신의 주장은 분명치 않게 감추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할 뿐이라는 자기희생의 행위가 곧 선한(good) 여성이라든지 도덕적 등식이 진정한 여성상으로 간주된다. (장영자, 『한국 여성문학의 흐름』, 『한국현대 여성 문학론』, p.185 참조. 이주화(2002), "김유정 소설의 인물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p.38. 재인용)

90)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p. 445.

법과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다. 티니아노프는 옛 것의 폐허에서 새 건축물을 짓는 것을 패러디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 형식과 새 형식 사이의 대화관계⁹¹⁾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남녀의 성격상의 전도를 보여주는 「동백꽃」을 통하여 양가적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남녀의 성격 전도

(1) 「동백꽃」

이 작품은 <나>와 <점순>과의 사랑의 갈등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점순은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소극적인 나에게 구애 작전을 펴지만, 아직 성에 미숙한 나는 그녀의 반동형성적 표현을 눈치 채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점순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에게 접근하고, 나는 소극적인 태도로 그녀의 행동에 반응하다가, 점순의 용의주도한 구애 전략에 넘어가게 된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나가 가만히 생각을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팀 안그럴터냐?」 하고 무를 때에야 바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 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굴터니?」 「그래그래 인젠 안그럴테야!」 「닭 죽은건 염녀마라 내 안이를테니」 그리고 멧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둥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여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속으로 푹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움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듯이 원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말말야?」 「그래!」⁹²⁾

91) 상계서, p.181.

92) 「동백꽃」, pp.205~206.

위 인용문은 남성인 <나>와 여성인 <점순>이가 성격의 측면에서 성의 전도 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점순의 남성적인 공격성과 행동의 주도성은 <나>가 핫김에 <점순>네 닭을 핫김에 죽이고 나서 벌어지는 갈등관계에서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닭을 죽인 것을 빌미로 여성인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협조하고 타협하는 소극적인 여성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전통적인 성적인 역할의 전도현상을 목격하게 한다. 게다가, 점순은 남성인 나를 끌어안고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남성인 나는 소극적으로 그녀의 구애를 받아들임으로써 <점순>과 <나>가 남녀의 성격상의 특성이 뒤바뀌는 일탈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 정서에 따르면, 남녀 관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여성은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당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여성인 <점순>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남성인 <나>가 소극적 행위를 취함으로써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성적 역할의 전도는 전통적인 남녀관계의 인식의 틀을 깨는 패로디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낯설게 하기 수법으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지닌다. 그리고 속마음과 겉 행동을 대립적으로 보여주는 점순의 양가적 행동이나 특히, 청소년기에 뒤바뀐 남녀의 성적 역할을 양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준다.

다음은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남녀의 공간상의 전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가부장제 하의 여성들이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무기력한 남성들을 대신하여 집밖에서 돈을 벌고 와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예컨대, 전통적인 남녀관계에서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맡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남녀주인물이 보여주는 공간상의 역할전도는 분명하다.

이러한 '남녀의 공간상의 역할 전도'를 보여주는 작품에는 「따라지」, 「소낙비」, 「가을」, 「산골나그네」, 「솟」, 「貞操」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산골나그네」, 「소낙비」, 「貞操」를 중심으로 남녀의 공간역할전도 수법을 활용한 양가적 의미의 창조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남녀의 공간 전도

(1) 「산사플나그네」

이 작품에서 아내인 <나그네>는 병들고 무기력한 <남편>의 겨울옷을 마련하기 위해 들병이가 되어 위장결혼까지 한다. 여기에서 <나그네>의 마음은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하기 위한 전통적인 남녀 역할이 전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의 전도는 식민통치 시대가 몰고 온 절대적 궁핍의 상황이라는 삶의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① 밥들은 먹고나서 안젓으라니깐 갑자기 술사꾼이몰려든다. 이거웬일인가.어침에는 하나가오든니 다음에는세사람 쏘두사람. 모다 젊은축들이다. 그러나 각각들 먹일 방이업슴으로 주인은 좀망서리다가 그연놀말하엿으나 뭇한동리사람인데 어찌나한테서먹게하달라하는바람에 얼씨구나하엿다. 이제 야운이트나보다.....(중략)..... 「아즈머니 젊은 갈보사왓다지유? 좀 보여주게유.» 영문모를 소문도 다도는고! 「갈보라니 웬갈보?» 하고 어리썩썩하다 생각을하니 턱업는소리는아니다. 눈치있게 벽으로나려가서 보강지아페 웅크리고안젓는 나그네의머리를 은근히끌어안엿다. 자 저패들이 새댁을갈보로 황보고 차저온맥시다. 욕이아니닌 나를보아 오날만 술좀파라주기바란다—이런의미를곰상굿게 간곡히말하엿다. 나그네의낫은 별반변함이업다. 늘한양으로 예사로히 승낙하엿다.

② 「젊은안악네가 옷몸으로돌아다닌대두 고상일게유. 쏘어차피 사내는…」 여긔서부터사리에 맛도록이말저말을 주섬주섬 쓰내오다가 나의며누리가 되여좁이 어찌 켓느냐고 짝토파를지엿다. 치마를흡사고안저 가웃이 듯고잇든 나그네는 치마끈을 썬물며 이마를펼어트린다. 그러고는 두볼이 밝애진다. 절은게집이 나 시집가갯소 하고 누가나서랴. 이만하면 합의한거나 틀림업슬 것이다. 혼수는전에해둔것이잇스니 한슬 음잇젓다. 그대로이양이나 고쳐서입히면 고만이다. 돈이월은 은비녀 은가락지 사다가 각별히 색씨에게 선물나리고……

③ 「여보 자우? 이러나게유 얼핀」 계집의음성이나자 그는 씬을거리며 일어안는다. 그러고너털대는 훗적삼을깃을염여잡고는 덜덜썩다. 「인제고만 썬날테이야? 쿨룩……」 말라싸진얼골로 계집을바라보며 그는 이러케물엿다. 십분가량지넛다. 거지는 호사하엿다. 달사빛에 번쩍어리는겹옷을입고서 집행이를끌며 물방아사간을 등젓다. 골골하는 그를부축하야계집은뒤에 싸사른다. 술집며누리다. 「옷이 너머커— 좀저

(2) 「소낙비」

이 작품은 무지하고 무기력한 <춘호>가 노름밀천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를 매음으로 내몰아서 집밖에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남녀의 공간상의 역할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도 전통적인 남녀관계가 지향하던 공간상의 역할이 깨어지는 것을 페로디 형식으로 보여준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한번 「돈좀 안해줄터여?」 하고 소리를 뱉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 업섰다. 춘호는 노기충천하야 불현듯문짜방을 떼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홑뜨고 벽에기대인지계막대를 손에잡자 안해의엽호로 바람가티 달겨들었다. 「이년아 기집 조타는게 뭐여? 남편의근심도 덜어주어야지 끼고자자는 기집이여?」 지계막대는 안해의 연한 허리를 모지게 후렸다. 까브러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리 찌그러진 울타리틈을 뺏어나간다. 쟁쳐 지계막대는 안즌채 고까라진 안해의 발뒤축을 얼러 볼기를 내려갈렸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게여?」 범가티 호통을치고 남편이 지계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모즈름을쓸때 안해는 「에그머니!」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야 몸을 뒤치자 거반 업퍼질듯이 싸리문 박그로 내달렸다.⁹⁴⁾

위의 인용문에서 <춘호>는 아내에게 노름밀천을 마련해 오도록 구타로써 매음을 조장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춘호처>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의 구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네 부자인 <이주사>와 성관계를 맺어 돈을 벌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춘호처>의 매음은 소박하게도 남편의 구타에서 벗어나고, 남편과 도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일상적 삶의 목표에 맞춰져 있다.

결국, 춘호처는 매음도 불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탈바꿈하여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가 매음으로 돈을 벌어오는 경제적 주체로서 변모한다. 남편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바꿔 매음을 하는 모순된 구조를 통해 당대의 전통적인 현실과 관습이 파괴되면서 페러디 된다. 그리고 남편과 가정을 지키려는 순종적인 미덕을 지닌 아내가 정조를 파는 반

94) 「소낙비」, p.24.

윤리적 행동을 통해서 독자들은 충분히 낯선 경험을 하면서 모순된 두 가치가 상존하는 양가성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양 가치를 제시하는 작가의 의도는 그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는 당대현실을 고발하는데 맞춰져 있다.

(3) 「貞操」

이 작품에서도 <행랑어멈>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주인 <서방님>을 매음으로 유혹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적극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여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무능력한 남편은 역시 아내를 내세워 매음을 조장하고(남녀의 공간상의 역할 전도를 통한), 그 돈으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당대 사회의 모순된 삶의 구조를 양가성을 활용하여 증언하고 고발한다.

「그래서 말이지 이런일은 번이 없는 법이지만 내가 돈십원을 줄테니 이걸로 앞다리를 구해 나가게」 하고 큰 지전장을 생각있이 내줌에는 「글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갈수는 없을걸이요」 하고 주뭉뭉 돈을 받아들고는 좋아서 행낭방으로 뺑 나가 지 않을수 없었다. 아씨도 이만하면 네년이 떨어졌구나 하고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마는 단오분이 못되어 어머님이 부랴게들어오드니 그돈을 도루 내어놓며 「다시 생각해보니까 못떠나겠어요 어떻게 몸이나 풀구 한 뒤달 지나야 움직일게 아냐요? 이몸으로 어떻게 이사를 해요?」 하고 또라지게 탄청을 부리는데는 아씨는 고만 가슴이 다시 달롱하였다.이년이 필연코 행낭방에 나갔다가 서방놈의 훈수를 듣고 들어 파서 이러는것이 분명하였다. 아씨는 더 말할 형편이 아님을 알고 돈을 받아든채 그대로 병병히 섰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다 한참 지난 뒤에야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방님에게 일일이 고해 바치고 「나는 더 할수없오 당신이 내쫓든지 어떡커든지 해보우!」 하고 속썩는 한숨을 쉬니까 「오죽 뺨맞게 해야 돈을 주고도 못내보낸담? 쟈! 쟈! 쟈!」 하고 서방님은 도끼눈으로 혀를 채인다. 어머를 못내보내는것이 마치 아씨의 말주변이 보죽해 그런듯 싫어서이다. 그는 무엇으로 아씨를 이욕히 노려보다가 「나가! 보기싫여!」 하고 공연스리 역정을 벌컥 내었다. 마는 역정은 역정이로되 그나마 행낭방에 들릴까봐 거블집어먹은 가는 소리로 큰소리의 행세를 할라니까 서방님은 자기속만 부저부적 탈뿐이었다.⁹⁵⁾

95) 「정조」, pp.269~270.

<행랑어멈>이 난봉꾼인 주인 <서방님>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매음 전략의 배후에는 무능력한 <남편>이 존재한다. 정상적인 윤리기준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1930년대의 절대 궁핍의 비정상적인 시대 상황에서 볼 때는 정조보다도 생계문제에 우위를 둘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음은 이들 부부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음으로 돈을 벌어 가정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도 <아내>가 매음으로 돈을 벌어 생계를 책임지는 이른바, 남녀 역할의 공간상의 기능이 전도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전통적인 관습을 깨는 패로디의 의미와 윤리적 관념과 반윤리적 행동이 충돌하면서도 공존하는 양가적 의미를 생성케 한다.

지금까지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전통적인 남녀관계의 역할전도 현상을 낫설게 하기와 전통적인 관습 깨기의 패로디의 수법과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패로디의 수법을 통해서 형상화되는 양가성의 의미를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김유정 소설에서 발견되는 성의 전도 현상은 '남녀의 성격상의 전도'와 '남녀의 공간상의 전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의 성격상의 전도는 「동백꽃」에서 <나>와 <점순>의 상반된 역할 전도와 반동형성적인 행동을 통하여 양가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남녀의 공간상의 역할 전도는 가부장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과 가정을 대신하여 아내가 자신의 정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서 매음을 통한 돈의 획득은 삶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일 뿐, 부부의 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모순된 가치의 공존이라는 양가적 의미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를 고발하는 패러디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공통점은 여성이 집밖의 공간에서 돈을 벌어오는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성은 집안에서 육아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역할로 뒤바뀌게 된다. 이것은 분명 당대의 한국 전통사회가 안고 있던 삶의 모습에서 일탈된 낯선 모습일 수 있다. 작가는 그러한 전도된 삶의 모습을 양가적 가치로 인식하는 동시에 낫설음의 소설미학으로 형상화시켜 제시함으로써 1930년대적 삶의 풍경을 문학적으로 고발하고 증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전도된 남녀의 역할 관계는 비정상적인 상황, 거꾸로 뒤집힌 세계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녀의 역할 전도는 이

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의 일제 식민체제 하의 민중들의 처참한 궁핍성을 드러내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인 동시에, 전통을 깨트린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고발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의 유형과 그 소설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 양가성의 유형과 소설적 의미

지금까지 필자는 김유정이 아이러니, 역설, 패러디 등을 활용하여 소설적 의미의 양가성을 어떻게 창조하여 표출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과 설명의 과정을 거쳤다. 이제, 앞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의 유형적 의미를 살펴보고 한다.

193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극에 달한 시기여서, 농촌의 경제사정은 극단적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의 의미는 당대의 검열과 탄압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우회적으로 궁핍한 현실의 질곡을 고발하기 위한 소설 미학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은 4가지 유형으로 집약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랑(결혼) 양가성, 둘째, 황금의 양가성, 셋째, 매음(돈)의 양가성, 마지막으로 도시적 삶의 양가성이다. 먼저, '사랑(결혼) 양가성'의 유형적 의미를 「동백꽃」, 「봄·봄」, 「산골」 등을 텍스트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사랑(결혼)의 양가성

(1) 「동백꽃」

이 작품은 청소년기의 인물을 내세워 사랑의 통과 의례적 상황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닭싸움을 매개로 구축되는 갈등 구조는 <점순>이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는 반동형성적 구애 전략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조속하여 성(性)에 일찍 눈을 뜬 점순은 나에게 낯선 행동을 한다. 이러한 점순의 행동은 겉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에게 구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숨은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나의 내적 성숙과정은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점순과의 대

립구조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나는 자신을 연속적으로 괴롭히는 점순에 대한 미움으로 점순네 닭을 핫김에 때려죽이고 만다.

그 결과, 나는 닭을 죽인 것이 동기가 되어 점순이가 제시하는 구애전략을 수용하여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타협은 동백꽃 숲의 포옹을 통해서 나를 괴롭혀온 점순의 반동형성적 심리구조를 양가성으로 이해하게 되는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양가성은 주인공 <나>가 성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이입하는 통과 의례적 성숙의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양가성은 점순이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표면적 행동과 내면적 의도를 상반되게 취함으로써 독자를 낯설게 만들고, 시험적 통과의례 소설의 한 양상으로 자리 잡게 한다. 여기서 작가는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성에 대한 무지의 상황으로부터 깨달음과 사랑을 동시에 획득하기까지의 갈등과 시련과정을 거쳐 성인사회로 이입하는 성장 소설의 한 유형을 보여주게 된다.

(2) 「봄·봄」

이 작품은 우직한 <나>의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노동력 착취 전략으로 악용한 당대 농촌의 데릴사위제의 모순을 고발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장인>이 <나>에게 한 <점순>과의 결혼 약조는 일시적인 속임수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점순은 자신의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나에게 결혼 욕구를 충동질 하는 행동을 하지만, 정작 나와 장인의 극한적인 대결상황에서는 아버지의 편을 드는 양가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나는 어리둥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순의 행동은 아버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심리적인 이중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점순이가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벌이는 심리적 줄다리기와 장인이 보여주는 나에게 대한 결혼 지연 전략과 새로운 결혼 약속 전략, 그리고 주인공 나가 장인의 농사일에 협조하다가도 빈둥거리며 일을 하지 않는 등의 심리적 이중성은 결국, 사랑(결혼)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랑의 양가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골」에서는 순진한 <이뿐이>를 난봉꾼인 <도련님>이 일시적인 욕정으로 범하고 서울로 떠난 뒤, 그를 따라가겠다는 이뿐이를 곧 데려가겠다는 감

언이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랑의 양가성을 의미화한 작품이다. 때문에 이뿐이는 날마다 사랑과 그리움으로 자신을 데려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그의 속임수로 배신을 당함으로써 결혼의 꿈은 무산된다. 결국, 이 소설은 사랑의 욕정과 사랑의 배신이라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양가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유정은 사랑의 양가성이 드러난 작품을 통하여 1930년대의 궁핍한 삶 속에서도 순박한 사랑을 피워 나가는 사춘기 주인공들의 순수하고도 어수룩한 애정관을 보여 주고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속는 자’는 순진무구한 결혼을 꿈꾸고, ‘속이는 자’는 일시적인 욕정 채우기에 서로 다른 목표를 품으로써 사랑의 양가성이 상반된 대립구조 속에서 형상화 된다. 이러한 양가적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속임수는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 유지되는 근대의 인간관계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⁹⁶⁾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金따는 콩밭」, 「노다지」, 「금」 등을 텍스트로 하여 황금의 양가성에 대한 유형적 의미를 설명하겠다.

2) 황금의 양가성



(1) 「金따는 콩밭」

이 작품은 농사를 지어 봐도 늘 빚에 쪼들리는 소작농 <영식>이 <수재>의 꾀에 빠져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몰락하는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수재>도 금이 나올 줄 알고, <영식>과 함께 콩밭에서 금을 캐고자 한다. 그러나 금이 나오지 않자, “금줄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동시에 영식의 후탈을 두려워하여 도망갈 계획을 세우는 양가적 행동의 인물이다.

그러나 콩밭에서 황금을 캐려는 영식의 욕망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콩밭을 망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결국, <영식>은 콩밭을 망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인물이지만, 이런 결과는 작중인물들의 무지와 극한적인 궁핍의 시대상이 몰고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제 식민체제 하의 희망 없는 시대 상황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전략이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당시의 사회상을 고발하기 위한 소설적 목표를 황금의 양가성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96) 김혜영(2002), 앞의 논문, p.163.

황금을 목표로 한, 사악한 속이는 자와 순진무구한 속는 자가 공존하는 모순된 사회구조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러한 소설들은 황금의 양가성을 통해 한 시대의 질곡을 증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노다지」

이 작품은 <꿈보>와 <더떨>이 의형제를 맺고 함께 잠채로 돈을 벌며 행복한 생활을 꿈꾸다 정작, 꿈보가 금을 발견하게 되자 마음이 변해서 은인인 더떨이를 배신하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황금에 대한 소유욕으로 인해, 꿈보는 더떨에게 은혜를 입은 '은인'인 동시에 자신을 배신하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발동하여 이항대립적 갈등을 겪게 된다. 예컨대, 황금을 앞에 두고 생성되는 모순된 대립적 심리구조를 양가적 의미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은인에 대한 신뢰의 마음과 대립적인 배신의 마음이 공존하는 속에서 꿈보의 양가적 심리가 구축되지만, 소설 전체 구조의 차원에서는 황금을 대상으로 하여 은인과 배신자가 공존하는 사회상을 양가적 의미구조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꿈보는 뜻밖의 사고로 더떨이가 동발에 깔려버리자, 의형인 그의 죽음을 방치한 채 황금을 챙겨 도망친다. 이처럼 금에 대한 탐욕으로 꿈보는 혼자 노다지를 차지함으로써 그동안 은인이라고 여겨왔던 인간관계를 배신한다. 이와 같이, 꿈보에게서 발견되는 황금에 대한 욕망과 변심 가능성은 인간에 내재한 본능의 제시라는 측면보다는 당시의 각박한 현실을 고발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금」도 하룻밤 동안의 잠채꾼의 행위와 심리를 추적하여 그 갈등구조를 보인 작품으로, 잠채꾼들 사이의 신뢰와 배신을 이중적이고 대립적인 양가적 의미구조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황금을 중심으로 한 양가성은 겸손과 오만, 양심과 욕심, 신뢰와 의심, 은혜와 배신, 분배와 착취, 생과 사 등의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 양가적 의미구조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황금의 양가성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금점이나 황금을 소유하려는 작중인물들의 탐욕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순박한 인물들이 타락해 가는 시대상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문제의식을 함유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제의 수탈과 과도한 도지제에 의해 견디다 못한 소작농민이 밭을 파헤치거나 이농민이 되어 금광에 가서 황금을 캐다 생긴 일을 소재로 다룬 소설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

받침한다. 실제로 김유정은 당시 충청도의 한 금광에서 몇 달 동안 현장 감독의 체험을 바탕으로 황금을 찾아 횡재를 노리는 인간 군상을 그려 낸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제 식민체제 하에서 약탈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조선내 금광 개발은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이 농군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금 꿈을 동경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농촌의 궁핍은 점점 더 가중되고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와 같이 김유정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이는 공통점은 황금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고 오로지 그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작중인물이 보이는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형성되는 양가성은 가난과 부자, 생과 사, 애정과 증오, 행복과 불행 등에 대한 상반되고 모순된 대립구조를 동시에 보여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작중인물들의 파행적 수단을 통해 구체화되는 일확천금의 꿈은 비현실적이기에 항상 욕망의 좌절과 결핍으로 남는다. 따라서 김유정의 소설에서는 금광 주변의 다양한 인물군상들을 통하여 인간이 황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과 동시에 절대적인 궁핍의 상황 하에서 탐욕으로 어떻게 황폐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다음은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황금의 양가성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매음(돈)의 양가성이다. 이러한 매음(돈)의 양가성을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안해」, 「산스골나그네」, 「소낙비」, 「숫」, 「가을」, 「貞操」, 「애기」, 「땡별」 등이 있다.

3) 매음(돈)의 양가성

(1) 「산스골나그네」

이 작품에서 <나그네>는 병든 <남편>의 겨울옷 마련하기 위하여 과부라는 속임수에 들병이가 되고 심지어 <덕돌>과 위장결혼을 한다. 이러한 <나그네>의 매음은 조강지처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전통적인 여인상으로 병든 <남편>의 겨울옷 구하는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무능력한 <남편> 대신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다는 자기 모순적 논리를 함축함으로써 양가성을 함유한다. 나그네는 위장결혼을 통하여 덕돌의 의복을 훔치

고 야반도주하여 병든 남편에게로 돌아감으로써 순종적인 열녀의 이미지를 획득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행동은 다른 남자와 매음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였고 비열녀적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인공은 매음과 돈을 중개자로 하여 열녀로서의 행동과 비열녀로서의 대립적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매음의 양가성을 형상화한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2) 「소낙비」

이 작품에서 <춘호>는 가난을 벗어날 최후의 방법을 노름에서 찾으려는 허황된 꿈을 갖고 아내팔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돈을 소유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춘호>는 그의 유일한 소유물인 아내를 통해 돈을 획득하려 한다. 이때의 아내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과 교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략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면 매음도 불사하고 생계를 위한 매음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타락한 시대상은 윤리적인 문제의식 못지않게 일제 식민체제 하에서 궁핍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증언한다.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춘호는 아내를 매음하게 하여 번 돈으로 다시 노름을 하여 아내와 함께 농촌을 떠나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비윤리적이고 어리석은 인물이다.

여기서 가정의 행복을 꾸리기 위해 아내를 매음시키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춘호의 행동은 양가성을 지닌다. 이점에서는 <춘호처> 또한 동일한 양가성의 소유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녀도 비록 남편의 사주에 의한 것이지만, 비윤리적인 매음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꿈꾸는 자라는 점에서 양가성을 지닌다.

작품 「가을」에서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편>은 아내를 팔고, <소장사>는 얼굴 푹푹한 아내를 맞아다가 술장사를 시켜 돈을 벌어서 경제적 풍요를 누르고 싶은 욕망으로 남의 아내를 돈으로 산다. <남편>과 <소장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획득하기 위해 여성을 팔고 사는 비윤리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양가적 인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음의 양가성을 형상화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남편이 무능력하여 아내의 매음을 조장한다는 점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매음을 했지만 부부간의 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생존을 위해서 행해지는 매음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상품화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여자의 성이 하나의 상품으로 비인격화 되어 화폐가치에 종속됨으

로써 돈의 가치의 절대적인 상승과 인간 가치의 절대적인 하락을 의미한다. 요컨대, 돈의 결핍에서 비롯된 돈의 희소화 현상이 돈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반윤리적 현상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⁹⁷⁾

이런 유형의 사건이 내재한 김유정의 작품을 유인순은 ‘아내팔기 모티프’라고 명명한다.

김유정 작품 속에 나오는 아내팔기 모티프는 한계상황 속에서의 실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여성의 몸을 파는 행위란 당시 여성에게 밀천 없이 할 수 있는 정당한 노동이었다고. 적어도 김유정 작품 속의 아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을 팔지만, 일단 난관이 해소되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갔다고. 도덕이란 먹이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것이고, 생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⁹⁸⁾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아내팔기(인신매매)⁹⁹⁾는 정상적인 도덕율(道德律)을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역설적이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또한 이러한 매음은 굶주림과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의 본능적인 안간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¹⁰⁰⁾이라는 점에서 그 비극성이 크다. 이러한 모티프는 김유정의 후기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매음의 표상인 들병이는 30년대 식민지 조선이 궁핍화된 현실의 말석에서 끈질기게 생명에 집착했던 대표적인 유형이다. 김유정은 역설적이게도 들병이를 통하여 능동적인 여성상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으며, 들병이는 남성의 무능력으로 인해 성적 쾌락의 차원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행하여짐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97) 변정화(1987), “1930년대 한국단편소설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207.

98) 유인순(2003), 전계서, p.7.

99) 처자를 매매하는 풍습은 빈민들 간에서 1930년 까지도 성행했다. 초기의 방식은 전당포에서 저당을 하는데 연령(年齡) 미추(美醜) 성을 제공하는 여부에 따라서 대금류(貸金類)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저당된 인신(人身)은 홀아비로 사는, 주로는 일인(日人)들에게 기한부(期限附)로 전대(轉貸)되는데, 돈을 갚는 동안 취사, 세탁은 물론 계약에 따라 서는 잡자리까지도 제공해야 한다. 대금이 변제되면 돌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더러는 몸값을 더 물고 사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임종국(1982), 「한국문학의 사회사」, 정음사, pp.65~66.)

100) 신동욱(1988), 전계서, p.137.

1930년대에 행해진 매음의 근본 원인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서 기인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궁핍한 현실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성을 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회, 가부장제 하에서의 무기력한 남자들, 전도된 남녀의 역할관계 등은 뒤집힌 세계에 대한 우회적 표현¹⁰¹⁾으로서 양가성을 형상화하는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김유정의 도시적 삶을 통하여 양가성을 살펴볼 차례이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의 소설은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농촌소설과 다를 바 없는 이농민의 궁핍상을 다루고 있다. 농촌의 아내들이 매음을 하여 번 돈으로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꿈꾸고 이농민이 되어 정착한 곳이 도시이다.

그러나 이들의 비극은 도시에든 마찬가지로 극심한 궁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대의 식민통치가 가혹한 수탈정치를 표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이농민들이 도시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그린 소설에는 「貞操」, 「땡별」 등이 있다.

4) 도시적 삶의 양가성

(1) 「땡별」



이 작품은 이농민이 도시 노동자가 되어 겪는 비극적 생활을 잘 묘사한 작품으로 그들 생활의 비참성이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 있다.<덕순>은 아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병에 걸린 아내를 대학병원에 맡겨 병도 고치고 월급도 타먹으며 팔자를 고쳐보려는 허황된 꿈을 지닌 비정상적인 사고의 인물이다. 병도 고치고 팔자도 고쳐 보리라는 두 가지 희망을 안고 그는 병든 아내를 대학병원에 팔기 위해 병원으로 간다.

그러나 결과는 아내가 희귀한 병자가 아닌 단순한 자궁 내 사산자로 진단됨으로써 그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된다. 덕순에게 도시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인 동시에 풍요한 삶을 약속해 줄 것 같은 부푼 '희망'의 공간이었으나, 실체가 없는 허망한 신기루로 끝나버림으로써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그에게 도시적 삶은 꿈과 절망을 공유하게 한 삶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양가적 인식의 대상이 되지만 끝내는 절망하게 한다. 그래서 그에

101) 김병익, 전계서, p.284.

게 현실적 삶의 터전인 도시는 햇볕이 내리쬐는 땀별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겹고 절망적이다.

또 다른 도시소설인 「貞操」에서는 <행랑어멈>이 남편의 목인과 방조 아래 취중의 <서방님>을 유혹하여 성 관계를 맺고 정조의 대가로 돈 200원을 받아내는 <행랑어멈> 부부의 이야기이다. <행랑어멈>은 주인<서방님>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정조를 돈으로 교환한다. 난봉꾼인 주인 <서방님>의 성적 욕구를 이용하여 장사 밑천을 마련해보고자 계획적으로 몸을 판다.

이 작품에서도 「소낙비」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방조아래 매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랑어멈은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정조를 팔아 돈을 획득함으로써 남편에게 열녀임과 동시에 서방님에게 정조를 판 비열녀로서의 모순된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양가적 행동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작품들과 달리, <아내>의 매음이 최후의 생존 수단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 도덕이나 윤리를 찾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은 농촌을 떠난 유랑민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삶의 방편으로 전략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김유정의 후기 도시소설은 자신의 고향에서 떠밀려나와 유랑하는 하층 농민이 도시노동자가 되어 겪는 도시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궁핍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매음이라는 일탈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궁핍성이 한층 장기화하고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고찰한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의 4가지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결혼)의 양가성에서는 반동형성적 구애 전략을 구사하는 청소년의 이중심리 구조 속에서 사랑의 양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결혼을 전제로 한 「봄·봄」과 「산골」에서는 결혼을 꿈꾸는 순박한 ‘속는 자’와 타락한 ‘속이는 자’사이의 대립적 심리구조 속에서 사랑의 양가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황금의 양가성에서는 황금을 중개자로 한 겸손과 오만, 양심과 욕심, 신뢰와 의심, 은혜와 배신, 분배와 착취, 생과 사 등의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 양가적 의미가 형상화 된다. 그리고 빈과 부,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 등의 상반된 대립적 모순구조를 통해서도 양가성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매음(돈)의 양가성에서 매음은 궁핍한 현실탈출에 목표를 둔다는 점

에서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마음이 갖는 비윤리성이 충돌하는 모순구조 속에서 양가성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도시적 삶의 양가성은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당대의 궁핍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궁핍으로 시달리는 다양한 작중인물들의 대립적 행동인 열녀/비열녀, 희망/절망의 상반된 대립구조 속에서 양가성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은 작중인물들의 모순된 관념과 그에 따른 모순된 삶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의 의미는 이항대립적인 사고와 가치를 해체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동등한 양면적 삶의 가치로 포함시킴으로써 형상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해석을 통해서, 그의 소설미학은 1930년대라고 하는 특수한 시대상을 편협한 인식에 머물지 않고 보다 확대된 종합적 안목으로 인식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IV. 결 론

이 연구는 김유정의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주제론적 관점에서 소설미학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설의 양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작품의 구조와 기법, 욕망과 갈등구조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이항대립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가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I 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양가성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파악하여 김유정 소설 연구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양가성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이드의 개념과 바흐친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드의 양가성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쥐인간을 살펴보았다. 그는 주체가 동일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태도나 모순적인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태를 양가성이라 하였고, 그의 이론에 대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멜라니 클라인'의 통찰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리적 동인으로서의 양가성을 문학사회학적으로 좀 더 확장한 페터 지마의 이론과 함께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에서는 현실 뒤집기의 문학적 특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카니발 문학은 실체적 층위가 아닌 기능적 층위에서 상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뒤집혀진 가치관이나 삶을 나타내는 동시에 양가적이고 동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을 분석해 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구조주의의 방법을 원용하여 8편(「산스골나그네」, 「소낙비」, 「노다지」, 「金따는 콩밭」, 「만무방」, 「봄·봄」, 「동백꽃」, 「땡별」)의 텍스트로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II 장에서는 양가적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플롯의 전개원리와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8편의 텍스트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플롯의 구조화와 인물의 욕망의 형상화 등을 통한 양가성의 창조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김유정 소설의 플롯은 대체로 비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작중인물들이 추구하는 욕망 형태는 대체로 무지한 인물들을 통해 형상화 되는 미해결의

플롯 구조를 활용한 아이러니와 역설 등의 극적 효과를 창조한다. 김유정의 소설은 표층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의 전도 구조에 의해 양가성을 창조하거나, 모순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원점 회귀적 서사구조를 통해 이중적 의미의 양가성을 형상화한다.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파행적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언제나 좌절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일제식민 체제 하에서 동요되거나 반항으로 또 다른 이중적인 욕망의 양가성이 드러나며, 현실적 모순이 되풀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의 표출하기 위한 기법을 활용하여 양가적 의미를 어떻게 창조하였는가를 탐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로, 아이러니와 역설, 패러디 기법을 살펴보고, 양가성의 유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아이러니의 유형을 보면, 김유정이 양가적 의미의 표출방식으로서 사용 빈도가 높은 '상황의 아이러니'와 '언어의 아이러니'로 분류하고, 상황의 아이러니를 다시 '극적아이러니, 자기폭로의 아이러니, 사건의 아이러니' 분류하여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파행적 수단으로 절도, 도박, 매음 등의 방법을 선택한다. 작중인물들이 선택하는 이러한 반윤리적인 생존전략은 그것들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존재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의 전략이라는 사실로부터 비극성을 읽어낼 수 있다. 1930년대 암울한 일제 식민체제 하의 시대적 배경 속에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순박하고 무지한 인물들의 비극적인 현실에서 작중인물들이 벌이는 행동이나 사건은 당대의 현실조건에 대한 문학적 반항이자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고발은 반어적인 대립구조를 통하여 한층 예술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됨은 양가적 의미를 주체의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기여한다.

다음은 양가성을 생성시키는 역설의 기법과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역설의 기법은 한결같이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시대 상황과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가는 아내의 매음이나 인신매매 등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1930년대라는 극한의 시대를 특유의 역설과 반어 등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김유정 소설에 있어서 도덕이나 윤리의식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생존의 절박함으로 인식된다. 그만큼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 최악의 상태였음을 고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초윤리적 시대상황을 가장 치열하게 증언하는 도구로서 매음과 인신매매, 혹은 만무방적 행동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며, 또 그런 시대상황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양가성을 의미의 형상화 방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작중인물들을 통하여 이러한 반윤리적이고 파행적인 인간관계의 설정은 단지 역설적인 웃음을 유발시키는데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대의 시대상황이 인간관계의 마지막 보루에 직면해 있었음을 증언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남녀가 성격이 뒤바뀌는 이른바, ‘성의 전도현상’이나 ‘공간 기능의 전도현상’을 모순과 대립의 논리로 보여주는 패러디의 기법을 통하여 양가성을 추출해 보았다.

먼저, 김유정의 소설에서 ‘성의 전도현상’은 패러디의 기법을 통해 제시되는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와 상반된 대립구조를 동시에 전제함으로써 양가적 의미로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역할의 전도는 전통적인 남녀관계의 인식의 틀을 깨는 패러디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낯설게 하기 수법으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지닌다. 그리고 속마음과 겉 행동을 대립적으로 보여주는 점순의 양가적 행동이나 특히, 청소년기에 뒤바뀐 남녀의 성적 역할을 양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준다.

다음은 김유정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남녀의 공간상의 전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가부장제 하의 여성들이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무기력한 남성들을 대신하여 집밖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은 분명 당대의 한국 전통사회가 안고 있던 삶의 모습에서 일탈된 낯선 모습일 수 있다. 작가는 그러한 전도된 삶의 모습을 양가적 가치로 인식하는 동시에 낯설음의 소설미학으로 형상화시켜 제시함으로써 1930년대적 삶의 풍경을 문학적으로 고발하고 증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의 유형과 그 소설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은 4가지 유형으로 집약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랑(결혼) 양가성 둘째, 황금의 양가성, 셋째, 매음(돈)의 양가성, 마지막으로 도시적 삶의 양가성이다.

첫째, 사랑(결혼)의 양가성에서는 반동형성적 구애 전략을 구사하는 청소년의 이중심리 구조 속에서 사랑의 양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결혼을 전제로 한 「봄·봄」과 「산골」에서는 결혼을 꿈꾸는 순박한 ‘속는 자’와 타락한 ‘속이는 자’사이의 대립적 심리구조 속에서 사랑의 양가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황금의 양가성에서는 황금을 증개자로 한 겸손과 오만, 양심과 욕심, 신뢰와 의심, 은혜와 배신, 분배와 착취, 생과 사 등의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 양가적 의미가 형상화 된다. 그리고 빈과 부,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 등의 상반된 대립적 모순구조를 통해서도 양가성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매음(돈)의 양가성에서 매음은 궁핍한 현실탈출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매음이 갖는 비윤리성이 충돌하는 모순구조 속에서 양가성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도시적 삶의 양가성은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당대의 궁핍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궁핍으로 시달리는 다양한 작중인물들의 대립적 행동인 열녀와비열녀, 희망과 절망의 상반된 대립구조 속에서 양가성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은 작중인물들의 모순된 관념과 그에 따른 모순된 삶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양가성의 의미는 이항대립적인 사고와 가치를 해체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동등한 양면적 삶의 가치로 포함시킴으로써 형상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해석을 통해서, 그의 소설미학은 1930년대라고 하는 특수한 시대상을 편협한 인식에 머물지 않고 보다 확대된 종합적 안목으로 인식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구조주의의 방법에 의존하여 김유정의 몇몇 작품만을 다룸으로써 총체적인 작품 이해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남겨진 문제들을 비롯한 김유정 소설의 종합적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져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 전신재 편(1987), 「일본 김유정 전집」, 한림대학출판부.
유인순(2003), 「김유정을 찾아가는 길」, 술과학.

2. 단행본

- 강영계(2001), 「프로이드의 혁명적 생애와 사상」, 「정신분석이야기」, 건국대학교출판부.
권택영(1990), 「미하일 바흐친과 후기 구조주의」,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구인환(1977), 「김유정 소설의 미학」, 민중서관.
----- (1995), 「서민과 빈곤의 김유정」, 「근대작가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병로(1999), 「한국 현대소설의 다성담론-시학」, 국학자료원.
김병욱 편, 최상규(1983),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김상태(1984), 「김유정의 해학과 미학」, 「한국현대소설사 연구」, 민음사.
김영수(1992), 「김유정-그 문학과 사랑」, 지문사.
김우중(1974),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김용구(1995), 「한국소설의 유형학적 연구」, 국학자료원.
김옥동(1988),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 (1989), 「다성적 소설의 세계」, 문학사상.
김윤식·김현(1987), 「한국문학사」, 민음사.
김윤식(1994), 「현대문학과 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4), 「들병이 사상과 알몸의 시학」, 「현대문학과 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정자 외, 김정자 외(1999), 「현대문학과 양가성」, 태학사.
김형자(1985), 「한국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삼지원.
김해옥(1999), 「한국 현대 서정소설론」, 새미.
박세현(1998), 「매춘소설의 한 양상」, 「김유정의 소설세계」, 국학자료원.
----- (1990), 「김유정 소설연구」, 인문당.

- 백기주(1979),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동욱(1975), 「김유정론」, 「현대작가론」, 형설출판사.
- (1982), 「김유정론-우리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김유정작품집」, 형설출판사.
- (1988), 「현대작가론-우리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개문사.
- 신근재(1995), 「한일 근대문학의 비교연구」, 일조각.
- 송하섭(1989), 「김유정-현실인식 포용의 서정」, 「한국현대소설의 서정성연구」, 단국대 출판부.
- 유태영(2001), 「현대소설론」, 국학자료원.
- 유인순(1988), 「김유정 문학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 (1988), 「김유정문학의 연구」, 강원대출판부.
- 윤병로(1983), 「김유정론-검허의 인생론」, 「현대작가론」, 이우출판사.
- 이용숙 역(1995), 「섹스북」, 박영률출판사.
- 이기백(1967), 「한국사신론」, 신구문화사.
- 이상섭(1981), 「아이러니」, 「문학비평용어사전」, 문예출판사.
- 이경(1999), 「한국근대소설이 근대성 수용양식」, 태학사.
- 임종국(1986), 「식민지의 금광경기-김유정의 “금따는 콩밭”」, 「한국문학의 민중사」, 실천문학사.
- (1982), 「한국문학의 사회사」, 정음사.
- 이재선(1981), 「가면과 얼굴의 변증법」, 「한국문학의 지평」, 새문사.
- 이선영(1985), 「문학으로 불사른 단명한 생애」, 「한국대표명작 8-김유정」, 지학사.
- 이재인(1997), 「한국의 소설 사상사」, 문학아카데미.
- 조동걸(1979), 「일제하 한국 농민 운동사」, 한길사.
- 조연현(1977),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 전신재(1997), 「김유정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전상국(1995), 「시대를 초월한 문학성-김유정」, 건국대학교출판부.
- 노스립프라이(1957), 「비평의 해부」, 임철규(2004), 한길사.
- 데이비드 스탭(1999), 「심리용어사전」, 송인서적, 끌리오.
- 로버트M.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이정은역(2002), 이제이북스.
- D.C. Muecke(1986),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 바흐친(1990), 「대화적 상상」, 문희경 역, 까치.
- 페터지마(1978), 「텍스트사회학이란 무엇인가」, 허창운.김태환 옮김(2001), 아르케.

----- 「소설과 이데올로기-현대소설의 사회사」, 서영상·김창주역(1996), 문예출판사.

게오르그 루카치(1985), 「소설의 이론」, 반성완역, 심설당.

미하일 바흐친(1988),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역, 창작과비평사.

3. 논문

<학위논문>

권용철(1988), “김유정 소설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권오식(2000),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현실 수용 양상”, 석사학위 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재갑(1997), “김유정 소설의 농촌적 색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미경(1991), “김유정의 작품 연구-형식적 특질의 면에서-”,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김순명(1980), “김유정고”,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인화(1992),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미현(1990), “김유정 소설의 카니발적 구조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동석(2000), “김유정 소설의 구조원리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연진(2002), “김유정 소설의 욕망구조 연구-일제 식민통치 논리와 의 상동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남미영(1991), “한국현대 성장소설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류재홍(1998) “김유정 소설 연구-사회적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문재규(2000), “김유정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준일(2001), “김유정 소설의 문체 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남철(1989), 「김유정소설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정규(1991), “김유정소설의 시간구조”,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변정화(1987), “1930년대 한국단편소설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난숙(2003), “김유정 연구-현실인식 및 해학성을 중심으로 문학 교육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성수(1989),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배따라기」, 「광염소나타」, 「운수 좋은 날」, 「날개」, 「무녀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윤채영(1994), 「김유정 소설이 주제의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오매선(1998),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덕제(1995), “소설텍스트의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유종영(1982), “김유정의 소설 연구-반어의 양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이명렬(1987),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 연구-판소리 문학의 특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 교육대학원.

이순(1986), “김유정 소설의 구성원리와 그 유형”,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주은(2000), “셰익스피어 Henry IV와 정치적 양가성”,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주화(2002), “김유정 소설의 인물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영화(2001), “김유정 소설의 아내 매춘 모티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정영호(1991), “김유정소설의 아이러니 구조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 교육대학원.

정귀선(1994), “김유정 소설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차은로(1983), “김유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최희자(1988), “김유정 작품연구-식민지시대 ‘삶’의 양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최현주(1999), 「한국현대 성장소설의 서사시학」,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한만수(1991), “한국서사문학의 바보인물연구-바보민담, 판소리계 소설-”, “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 (1985), “김유정소설의 아이러니 분석”,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길언(1984), “현진건 소설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일반논문 및 평문>

- 김우중(1974),“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 김병익(1974),“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 「문학사상」, 7월호.
- 김상태(1973),“김유정의 문학적 특성”, 「전북대논문집」 제16집.
- 김중호(2003),“김유정 소설에 나타난‘들병이’에 대한 일 고찰”, 「한민족어문학」 제43집.
- 김상일(1969),“김유정론”, 「월간문학」 6월호.
「국어교육」 20호.
- 김철(1987),“꿈, 황금, 현실-김유정의 소설에 나타난 물신의 모습”, 「문학과 비평」 겨울호.
- 김병익(1974),“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 「문학사상」, 7월호.
- 김용구(1980),“김유정소설의 구조”, 「관악어문연구」 제5집. 서울대.
- 김혜영(2002),“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17.
- 류종열(1998),“일제강점기의 금 모티프 소설 연구(I)-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외대 어문론집」 제13집.
- 배경열(2001),“「만무방」에 나타난 담론 양상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변신원(2001),“문학 속에 드러난 민족문화의 자취와 외국인에 대한 문학 교육-김유정 소설의 해학적 웃음을 중심으로-”, 「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신동욱(1971),“승고미와 골계미의 양상”, 「창작과 비평」, 통권22호.
----- (1969),“김유정고-목가와 현실의 차이-”, 「현대문학」.
- 서정록(1969),“한국적 전통에서 본 김유정의 문학”, 「동대논총」 제1집.
----- (1976),“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심층의식-김유정의 Female Complex를 중심으로-”, 「동대논총」 제6집, 동덕여대.
- 서종택(1976),“궁핍하시대의 현실과 작품변용-최서해, 김유정의 현실수용의 문제”, 「어문론집」 제17집, 고려대.
- 송하섭(1986),“「동백꽃」의 서정성론”, 「도술어문」, 단국대학교.
- 송준호(2000),“「소낙비」의 상징론적 해석”, 우석대.
- 안성수(2001),“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백록어문17」, 백록어문학회.
- 현대소설학회(2006),“이문열의 「변경」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권유리아-”, 「현대소설연구」, 「현대소설학회」 제29호.
- 유인순(1994),“유정의 그물-김유정문학의 심리비평적 연구-”, 「인문학연구」 제31집. 강원대 인문학연구소.
- 이경(1992),“김유정 소설의 역설성 연구”, 「국어국문학」 제29집.
- 이혜영(1986),“김유정의 성을 통해서 본 사회의식”, 「우석어문」 제3집.
- 이지영(2002),“김유정 소설연구”, 「목원 국어국문학」 제7집.

이주형(1976),“ 「소낙비」 ”와“ 「감자」 ”의 거리,“식민지 시대 작가의 현실인식의 두 유형”, 「국어교육연구」 제8집, 경북대.

임중빈(1972),“단한 사회의 회화”,“동아일보”(1965년 1월. 5일부터-12일까지, 4회 연재); 「부정의 문학」, 한얼문고.

장경탁(1987),“한국근대소설의 순환구조고-이효석의 「산협」 과 김유정의 「봄·봄」 을 중심으로-”, 「성대문학」 제25집, 성균관대.

전홍남(2002),“ 「金따는 콩밭」 중층성과 문제성”, 「한국언어문학」 제49집.

한상무(1975),“반어적 방법과 반어적 비전- 김유정연”, 「강원대 연구논문집」, 제9집.

한정수(2001),“김유정 문학에 나타난 여성”, 「사회과학연구」 제10집.

한만수(1986), “김유정의 아이러니 분석”, 「동악어문논집」 제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2001),“-장소진-김유정의 소설 「소낙비」 와 「안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 예림기획.



<Abstract>

Study of Ambivalence in Kim Yoo-Jung's novels

Hong, Suk-Hee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is study explores ambivalence in the structuralist perspective of novels with Kim Yoo-Jung's 8 short novels as a text. Here, ambivalence, as Freud or Bajtin said, is explained as the state in which a subject simultaneously shows opposing attitudes or contradictory emotions in relation with the same object. Accordingly ambivalence in novels is defined as a psychological state in which sentiments, values and attitudes contradicting each other are shown simultaneousl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mbivalence in novels indicates a psychological state in which sentiments, values and attitudes contradicting each other exert simultaneous and complex influence.

In Chapter II the identity of ambivalence is sought through the analysis of plot structure and characters' desire. Kim Yoo-Jung's novels create ambivalence with exchange structure between denoted meaning in outside and hidden connoted meaning. Or his novels materialize ambivalence of double meaning under returning narrative structure. The returning narrative structure means coming back to the starting point after pursuing contradictory desire to no avail. Characters take crippled actions to escape poor reality in Kim Yoo-Jung's novels, however this brings about disappointing situations. Kim Yoo-Jung invented these results by extracting ambivalence from dualism between absolutely poor circumstance driven by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opulace's desire to survive against this conflicting reality.

Through ChapterⅢ it was considered in detail how the author used the techniques of irony, paradox and parody which are ways of expressing ambivalence and how he materialized the meaning of ambivalence. At first, in the analysis of irony techniques study is conducted on how the meaning nominally denoted in his novels and the hidden connoted meaning are materialized in two ways. As for the analysis of paradox techniques, focus is placed on the analysis of the methods to create ambivalence through crippled social relations that cause a laughter instead of exposing reality in linear simple tragedy. In the 'parody' technique, consideration is given to how to create ambivalence by using 'personality exchange' structure and 'space exchange' structure between man and woman poking fun at the traditional ethical system.

In conclusion, ambivalence appearing in Kim Yoo-Jung's novels is divided into 4 patterns through these analytical processes mentioned above. 'Ambivalence of affection (marriage)', 'ambivalence of gold', 'ambivalence of prostitution (money)' and 'ambivalence of city lives'. The study of ambivalence in novels is important in that it can bring together and integrate all the conflicts from the environment and legal and cultural systems contradictory to characters' real lives (desire) and suggest the conflicts as the problems of society and world views of those days. Consequently the study of ambivalence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breaks dichotomous thinking and values into pieces and in doing so, opens broader cognitive world where various conflicts are recognized in general.

Therefore this study opened the ways to interpret themes in a complex and integrated manner using the concept of ambivalence instead of the existing linear interpretations about the themes in Kim Yoo-Jung's novel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감사의 글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씀으로 부족한 저를 지도해주신 안성수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배려로 도움을 주신 오봉희 소장님과 직장 동료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밖에 저에게 많은 격려와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늘 따스한 사랑으로 저를 지켜봐주신 부모님과 타국에서 보이지 않게 큰 힘이 되어준 경희, 상우씨, 준성이 그리고, 상철, 울케, 사랑하는 조카 완규, 채현, 그리고, 상희, 수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작은 책을 바칩니다.

내안의 작은 기쁨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의 또 한 장을 넘깁니다.